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7 (2003)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목차

1.

영광과 평화(눅2:10-14) 2003.12.24. (성탄주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두 세계와 관련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 영과 육, 영혼과 육체, 윗 세계와 아래 세계 등으로 표현되었고 본문에는 "지극히 높은 곳과 땅" 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땅을 지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늘이 닫힐 때 땅이 닫히고 하늘이 열릴 때 땅이 열립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양 세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 성탄이브에 가브리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의 소식과 찬양에도 이 세계가 더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 첫째, 왜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 회를 위한 구주로 나셨다고 합니다. 자기백성의 구원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1:21절) 오늘날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에서 태어나심은 주님께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로 나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란 것이지요. 또 그는 다윗의 동네에 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나심으로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구속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탄생 장면은 계시록 4·5장에 더 확실히 나옵니다.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만물의 찬양에 나온대로 모든 존귀, 영광, 권세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은 바로 이것과 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왜 그리스도의 나심이 사람에게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 아가면 자연히 그 분으로부터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all nation)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큰
기쁨(Great joy)을 맛보는 평 화, 성령의 임하심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식(News)의 전 달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만이 이 평화를 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문에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men on whom his favor
rests)에게만 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택한 자 곧,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에게 이
소식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는 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 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마1:12. 계3:20) 이미 영접했는데도 이 평안이 없다면
자기 마음의 왕좌를 비워 그리스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된
성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Glory and Peace (Luke 2:10-14) 2003.12.24. (Christmas Sunday)

Anyon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s involved in both worlds. One is the
kingdom of God. The other is the kingdom of the world. heaven and earth.
Spirit and body. soul and body. It was expressed as the upper world and the
lower world, and in the text it was called “the extremely high place and the
earth.” However, heaven is meant to rule over earth. When the sky closes, the
earth closes, and when the sky opens, the earth opens. Non-believers are
conscious of this to some extent, but Christians are well aware of both worlds
because they have been born again. On the first Christmas Eve, this world

became more clearly known through the news and praises of the angel Gabriel and the angelic host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with whom he is well pleased. (Verse 14) First. Why is the birth of Christ a glory to God? Because the birth of Christ fulfilled God’s will, it is glory. Look at verse 11: He was born as the Savior for your people (Matthew 1:21). His birth in Bethlehem is fulfilled. The fact that Christ was born as the Lord is a glory in itself, and the promises of the Old Testament were fulfilled as the true God was born in the city of David. This scene of birth appears more clearly in Revelation 4-5, and it is a scene in which all glory and authority are attributed to God alone, as described in the prais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the angels of heaven, and all things. Second, why does the birth of Christ bring peace to people? Peace comes naturally from God. It is a peace that anyone in the world can enjoy. This is a peace that brings great joy, and is experienced throug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is is a peace that is achieved through the delivery of news. In the text, it is said that only those who hear the gospel of Christ and believe in it are given to the chosen ones, that is, the shepherds. This is why this message was given to you, Simeon, and Anna: Receive Christ as your Lord and God tonight. 3:20) If you have already received this peace but do not have it, please empty the throne of your heart and give it to Christ. I hope you enjoy the peace of Christmas that has already been promised.

다윗의 자손 예수 (눅18:31-43) 2003.12.17 (수)

성탄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참 구원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 합니다. 바울이 사형선고를 받을 만한 고난 중에서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현실의 암담한 문제에서 친히 건지시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인자"이십니다.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나아갈때 반드시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깨끗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줄 알아야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참 구원의 체험이 성탄절의 선물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호칭 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자(the Son of man)라는 호칭입니다. 32-34절에 보면 주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인자"임을 밝힙니다. 모세의 예언 (창3:15, 창12:3, 신18:18)이나 다윗의 예언(시2. 시22: 등) 대로 인자란 다니엘 7:14절에 나온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같은 이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의 왕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사람의 성품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로 오셨으며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실 인자로 오셨습니다.(32-33) 다음은 주 다윗의 자손(the child of David) 이란 호칭입니다. 여리고의 한 소경이 나사렛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로 부릅니다. (38,39,41) 이것은 신성보다 인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것은 인간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 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통해 오신 분이시며 인간처럼 사시다가 인 간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참다운 구원을
 누립니다. 이 인자를 알게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34절참조) 그래서 겹 손하지 않으면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겹 손은 그냥 배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할 때 배워집니다. 잔치 집에 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소자의 자리에 내려갈 때 만납니다. 그를 만나기 위 해 우리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 기 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어떻게
 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종교적 전통에 매여 틀 에 박힌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소유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청년이나. 심지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참 구원의 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 이 소경만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훈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방향. 믿음이 대상이 오직 나사렛 예 수,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막았으나 더욱 소리질렀 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을 주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고 말 할
 수 있었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뜻이었습니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Receive your sight). 그는 곧 보게되었고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았으며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현실에도
구원하시는 주님에게 겸손히 나가야 이번 성탄절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Jesus, Son of David (Luke 18:31-43) 2003.12.17 (Wed)

I pray that true salv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Lord's coming to this earth, will be experienced experientially during the Christmas season. He rescued Paul from suffering that would have condemned him to death. Just as we confessed that the Lord will deliver us, the only one who personally delivers us from the dark problems of reality i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Man." I believe that as we move forward with faith tonight, a clean healing will occur, like a blind man opening his eyes. To do so, we must know who Jesus is and learn to walk out in faith. I hope this experience of true salvation becomes a Christmas gift. First, who is Jesus? In the text we find titles referring to Jesus of Nazareth. One is the title, the Son of man. In verses 32-34, the Lord reveals to the twelve disciples that He is "the Son of Man, about whom all the prophets wrote." According to the prophecies of Moses (Genesis 3:15, Genesis 12:3, Deuteronomy 18:18) and David's prophecies (Psalm 2, Psalm 22, etc.), the Son of Man refers to the Messiah mentioned in Daniel 7:14. In it, it is said that "one like the Son of Man will come and gather his people and offer them as a sacrifice to God. It is said that no one can overthrow his royal authority. He was perfected in Christ. So the Son of Man is more about the character of God than the character of a man." This is an

emphasized title. The Lord came as the Son of Man with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the Lord of the Sabbath, and the Son of Man who would die on the cross and be resurrected. (32-33) Next is the child of David. A blind man in Jericho calls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David” and “Lord” (38,39.41). This refers to the Messiah who will come as a descendant of Abraham and David. I met David, the son of Jesse, and he was a man after my own heart. I will accomplish all my will through him. This means that he came as a human Messiah and achieved salvation. He lived as a human and died as a human. He was a true human being, and today we can enjoy true salvation through faith in him (see verse 34). If you do not do this, you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Son of Man who came as a descendant of the Lord David. However, you will not learn humility when you go down to the banquet hall. In order to meet you, we must make the courageous decision to go down to a low position of prayer and meditation on the Word. Second, how can we reach the position of true salvation? The Pharisees who were stuck in a rut, the young people who did not recognize their own sovereignty, and even the disciples who followed the Lord most closely did not know the taste of true salvation, but this blind man had clear faith. Because he went to the Lord of mercy. direction of faith. I believed that the only object of faith was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Davi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He didn't give up. People tried to stop him because he was noisy, but he screamed even louder. He made his wish known to the Lord. How could he say he wanted to see it? This was God's wish and will.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saved you. It is said that he soon received his sight, and he followed Jesus, glorifying God, and the people praised God when they saw him die. For those of you who have already been saved, I pray that this Christmas will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receive solutions to your real-life problems by humbly reaching out to the Lord who saves even in reality.

하늘 보화를 쌓는 방법(눅18: 18-30) 2003.12.10 (수)

영생과 상급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 가진 자는 내세의 상급을 얻기 위 해 살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미래도 불 투명 하고 현재의 삶에도 무기력하고 목적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재의 경주를 알고 진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저, 하늘 보화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 얻 는 방법을 묻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은 부족한 것 하 나를 지적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면 하늘에 보 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보화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을 가리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받은 그 위로가 구원입니다. 천당 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이것도 하늘보화에 포함됩 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리킵니다. 30절에 나오는 영생이란 하늘보화임을 볼 수 있습니 다. (마25: 참조)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길은 모든 소유를 팔아 사야합니다. 그 다음 에 하늘보화란 상급을 가리킵니다. 구원, 영생은 근본적 하늘보화라면 상급은 그 이상 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풍성한 영생의 등급, 위로의 등급, 영광의 등급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각각 있습니다. 해달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판결에 따라 받는 상급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늘보화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불 신자의 영혼이 불멸된다는 주장(John Stott)은 그릇된 해석입니다. 상급의식이 미한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일어남으로 신앙생활에 긴장을 잃게하고 진리를 심상하게
 취급하게 하며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합니다. 주님이 하늘보화를 쌓으라
 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이란 시간이 보화 쌓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수고가 장차 나타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땅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엣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하늘 보화는 어떻게 쌓여지는가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하늘 보화를 쌓기 위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라고 하십니다.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물 외에도 쾌락. 명예. 권력,
 세상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파는 것은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
 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팔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시험과 올무, 근심과 염려가 그의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삭개오는
 즉석에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줄 것을 생각했고 은혜받은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간 행동은 재물의 우상을
 의지한 자요. 영생이 없는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도
 아니고 심지어 진정한 보화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드러낸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구제를
 강조하셨는가요? 이것은 하늘보화인 주님을 알고 더 깊이 그분과의
 교제를 위한데 있습니다. 진정한 보화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요14:6) 주를 따르는 것이 보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화가 좋다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됩시다.

How to Lay Up Heavenly Treasures (Luke 18: 18-30) 2003.12.10 (Wed)

Since eternal life and rewards are interconnected, those who have eternal life are meant to live to obtain rewards in the afterlife. A Christian who gives up on life as a racer becomes a person who runs aimlessly and is helpless in his present life with an uncertain future. However, those who know the current race and work hard live a life of accumulating heavenly treasures even though they are on this earth. What is heavenly treasure? In the text, a young man comes to the Lord and asks how to gain eternal life. He said he had kept the law since he was young, but the Lord pointed out one thing he lacked and told him to sell everything he had, give it to the poor, and follow me, and he would have treasure in heaven. What is the heavenly treasure spoken of here? First, it refers to salvation. The comfort that Lazarus received from Abraham's embrace after his death is salvation. Heaven is a place where those who have been saved go and receive eternal comfort. This is also included in heavenly treasures. And it points to eternal life. In verse 30, we can see that eternal life is a heavenly treasure. (Refer to Matthew 25:) So the way to possess eternal life is to sell everything you own to buy it. Next, heavenly treasure refers to the reward. Salvation and eternal life are fundamental treasures of heaven, but

reward refers to further grace. It refers to the level of abundant eternal life, the level of comfort, and the level of glory. There is a crown of life, a crown of righteousness, and a crown of pride. Just as the glory of the sun, moon, and stars are different, the glory of the reward received according to the judgment is also different. However, it is a big problem that Christians today have little interest in heavenly treasures. The claim that the soul of a non-believer is immortal (John Stott) is an incorrect interpretation. The lack of higher consciousness occurs due to the corrupted nature of humans, which causes us to lose tension in our religious lives, treat the truth superficially, and easily compromise with the world. The reason the Lord emphasizes so much on accumulating heavenly treasures is because this time is an opportunity to accumulate treasures. Because your present efforts determin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 pray that you will become believers who live today looking up to things above rather than looking to things on the ground. Next, how are heavenly treasures accumulated? The Lord told the young man to do three things to accumulate heavenly treasures. What is that? First, He tells me to sell everything I own. The problem for this young man was that he had a lot of material. Besides wealth, pleasure, honor. It can be power and worldly habits. Selling everything is transferring sovereignty. We live as stewards, not as owners. How many people today are lost because they cannot sell everything?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for trials and snares, worries and anxieties are fatal wounds to the soul. Second, he tells us to share with the poor. If you have more than you need, you should use it for the poor. So, Zacchaeus, who received grace, immediately thought of distributing his wealth to the poor, and the early church, which received grace, focused their attention on selling their possessions to distribute to the poor.

The sad behavior of this young man shows that he relied on the idol of wealth. He proved that he does not have eternal life. He was revealed to be spiritually blind, not someone who kept the commandments and even did not know the true treasure. Finally, he must follow the Lord. Why did the Lord emphasize this kind of relief? This is to know the Lord, our heavenly treasure, and to have deeper fellowship with Him. The only true treasure is the Lord. (John 14:6) Following the Lord is following the treasure. No matter how good the treasures in the world are, they cannot be exchanged for the Lord. Therefore, the work of change takes place in those who follow the Lord. This is the way of the Holy Spirit. Let us become people who leave everything and follow Christ to gain the glorious heavenly treasure.

영적 호스피스의 섬김(눅18:9-17) 2003.12.3(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돌보는 호스피스 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살전2:7,11) 2차 전도여행(49-52AD)시에 철학과 우상이 가득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아테이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부흥이 일어난 고린도나.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머리를 깎은 겐그레아에서의 사역은 그 방법이 각기 달랐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 인은 헬라인, 지혜자는 지혜자.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변신한 것은 바울의 겸손한 섬김에서 나온 표현이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할 때, 이웃 을 낮은 마음으로의 섬겨야한다는 진리를 비유와 실물교육을 통해 보여줍니다. 첫째, 기도에 있어서 겸손의 섬김이 있어야합니다. 10-14절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는 목표, 방법, 결과가 모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의 섬김이 있는 나 없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1)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로 섬겼 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이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유대 청교도로 불리웠습니다. 그의 기도 태도는 매우 정성을 드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섬김보다 자기의 의와 업적과 경건을 앞세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 생각한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는 같지 아니 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1) 1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 드리는 것은 시 간에 대한 헌신, 물질에 대한 헌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자

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개를 떨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한 문둥병자의 자세처럼 멀리 서서 기도
 했습니다. 부스러기은혜라도 받으려는 가난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품꾼의 하나로써
 달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기도내용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전의식, 은혜 의식, 죄인의식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슬초의 피를 의지하고 선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한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 할 때 주님은 책망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처럼 받드는 겸손의 섬김을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기도의 섬김에 실패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 성장할 때, 봉사할 때, 제자 삼을 때 모두 다 이웃을 섬김으로
 성장 합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겸손의 섬김입니다. 스랍의 섬김처럼 두
 날개로는 날고 여섯 날개로는 자기를 가리워야 합니다. 병원, 여인숙의
 의미를 갖는 호스피스의 말처럼 영적 호스피스로 부름받은 우리는 먼저

기도의 섬김에 성공하여 우리의 이웃을 은혜의 힘으로 겸손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형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Hospice Service (Luke 18:9-17) 2003.12.3 (Wed)

Apostle Paul was like a nurse when he was raising the Thessalonian saints. We have established a hospice ministry that cares like a father. (1 Thessalonians 2:7,11) During the second missionary journey (49-52AD), Athens was full of philosophy and idols and testified to God who created and provides, and Corinth, where a revival occurred after he stayed for 1 year and 6 months and testified the gospel, me. The ministry in Cenchrea, where people shaved their heads to find contact with the Jews, had different methods. A Jew to a Jew, a Greek to a Greek, a wise man to a wise man. For barbarians, turning into a barbarian is an expression of Paul's humble service and can be said to be wisdom. Today's text also shows through parables and object education the truth that when we pray, we must serve our neighbors with a humble heart. First, there must be humble service in prayer. The parable in verses 10-14 is one we are familiar with. A Pharisee and a tax collector pray. Their prayers had different goals, methods, and results. This is because victory or defeat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I have the humility to serve God. (1) With what prayers did the Pharisees serve? We stood and prayed separately. The Jewish Puritans were called “Pharisees®,” meaning “set apart.” His prayer attitude seems like a very sincere prayer. However, he had an arrogant attitude, thinking that he would receive God's approval by putting his righteousness, achievements, and piety ahead of his humble service. I am

thankful that I am not like those who extort, are unjust, and commit adultery. (11) Fasting twice a week and tithing one's income indicates dedication to time and material resources, and one boasts that one has fulfilled these obligations. But God did not and could not receive his prayer. (2) Unlike the Pharisees, how did the tax collector pray? (verse 13) He stood at a distance and did not dare to lift his eyes to heaven, but struck his chest. It is a feeling of inadequacy to go to God. He became conscious of the invisible God and lowered his head and prayed. He had an attitude of humility, appreciating the act of praying itself. I stood at a distance and prayed, like the posture of a leper. It was the persistent prayer of a Canaanite woman, a prayer that would not give up, trying to receive even a crumb of grace. This is the heart of the prodigal son who sees his father's face and asks him to be one of his hired servants. In the prayer,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we see that we are filled with a sense of existence, a sense of grace, and a sense of sin as we stand before the living God. That is why we repent before God and stand relying on the blood of hyssop. Second, we must be humble in serving our neighbors. Serving God and serving our neighbors are deeply related to each other. Because true humili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Bounds emphasized that a person who serves God well through prayer can serve people well. The reason the Lord rebuked children when they forbade them to come to Jesus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ose who serve with humility like children. Pride is evidence of failure in the service of prayer. The church grows by serving its neighbors when it believes in Jesus, when it grows, when it serves, and when it makes discipl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t is a service of humility. Like the seraphim, we must fly with two wings and cover ourselves with six wings. As

the word hospice, which means hospital or inn, calls us to be spiritual hospices, we must first succeed in the service of prayer and humbly serve our neighbors with the power of grace. When this happens, an event of prosperity occurs where we connect with God and with our neighbors.

욥의 삼단계 감사(욥42:1-16) 2003.11.16 추수감사절

욥의 인내를 본 삼으라고 한 야고보는 기 42장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1. 2장에 서 시작된 시험은 42장에 와서 인내의 결과를 보이는데 한마디로 "감사로 충만한 삶" "감사세계의 삶"이었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시련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나가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린 감사세계란 어떤 것인가요? 첫 단계는 개인의 경건에서 나온 입술의 감사입니다. 욥의 감사는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1장) 좋은 일에도 감사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은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하나님을 하고 죽으라고 퍼붓는 아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주권신앙을 가진 참된 예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도 주인은 주님이요. 저 일에도 주인은 주님이 시라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씨앗과 같고 마커의 화전을 막는 방패와 같고 영원한 솟아나는 영생샘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것은 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빌 4:6-7절) 지금, 감사의 입술입니까? 불평의 입술입니까?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치료의 첫 길입니다. 둘째 단계는 계시로 인한 눈 뜨임의 감사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감사의 고백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은 고난인 것입니다. 육체적 갈등, 정신적 혼란이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신령한 경험의 사람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4:7)고
 반문하면서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죄를 빨리 찾아 고백하라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빌닷도 "왕골이 진편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는가? (4: 11)고 전통적인 견해에
 이끌려 참소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죄가 있으니까 회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계가 열리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들쭉고 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11)고 합니다. 세 사람외에도 엘리후의
 지혜로운 권고 역시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눈이 뜨여지고 문제의 실상을 알아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계시(말씀)의 비추임으로 자기를 알고(42:3)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감사의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5) 마지막 단계는
 헌신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선, 욥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
 니라 연단받아 그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은 자로 인정받은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미마(비둘기), 굴시아(향기),
 게렌합복(아름답게하는 자)이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나라에 쓰임받는 그를 봅니다. 그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쓰임 받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세계는 복의 세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계입니다. 정금같이 사용되는 헌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감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Job's three stages of gratitude (Job 42:1-16) 2003.11.16 Thanksgiving

James's call to imitate Job's patience was based on chapter 42. 1. The test that started in Chapter 2 shows the results of perseverance in Chapter 42. In short, it was “a life full of gratitude” and “a life in a world of gratitude.” It is the destination of the trials that were granted to Job. This is because from faith to faith, it is a life that progresses from gratitude to gratitude. What kind of world of gratitude did he enjoy? The first step is the thanksgiving of the lips, born of personal piety. Job's gratitude first appeared in the confession of his lips. (Chapter 1) I was thankful for the good things, and I was able to be thankful for the bad things as well. Where did you get the strength to praise even when all your wealth is gone and your children are dead? How could I be thankful even though my body was completely ruined and I heard my wife curse me and tell me to kill God? In short, this was something that only true worshipers with faith in sovereignty could do. Even in this matter, the Lord is the master. Even in that matter, his unwavering conviction that the Lord was the master made him a person of praise. This is like a seed that brings abundant fruit, like a shield that blocks the marker's slash and arrow, and like water from the eternal spring of eternal life. But what you must remember is that this is the fruit given to those who pray.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When you pray and hold on to the promise that it will be opened to you when you knock, it will be given to you as an answer filled with gratitude. (Philippians 4:6-7) Are these your lips of gratitude now? Are these your lips of complaint? Turn complaints into gratitude. Turn resentment

into praise. This is the first path to treatment. The second step is gratitude for the opening of our eyes through revelation. Even if a confession of gratitude occurs when passing through a tunnel of suffering, suffering is still suffering. This is because physical conflict and mental confusion are clearly revealed in Job's conversation with his three friends. A man with spiritual experience named Eliphaz also applied the mechanical law of human and retribution by asking, "Who is the one who perished without sin?" (4:7). That's why I urge you to quickly find hidden sins and confess them. Bildad, too, is led by traditional views and accuses them, saying, "Can the bone of the king's head grow without mud, and can the reed grow without water? (4:11). The message is that we must repent because there is sin in an unseen place. It does not lead to the opening of a world of gratitude. "Do not let others dwell in the sins of others" (11). In addition to the three men, Elihu's wise advice also failed to provide true comfort, and when God's revelation finally came, their eyes were opened, they knew the reality of the problem, and their attitude changed. Through the illumination of revelation (Word), we know ourselves (42:3), know God more deeply, and through humbly repent, we come to know the world of gratitude. (5) The final step is gratitude that comes from devotion. Standing under God's light, Job finally came to know the mission God had given him. This did not end as a test, but was intended to be refined and use his entire life for the kingdom of God. God blessed Job twice as much as he was recognized as someone who endured the test. There was the grace of long life and peace. Above all, he became a person used in the kingdom of God. When we look at the names of his children, such as Jeomima (Dove), Gysia (Fragrance), and Geren Habbuk (Beautifier), we see him being used in the kingdom of God. He became an instrument of devotion that was completely

used by the Lord. A world of gratitude is a world of blessings. This is a world led by the Holy Spirit. It is a world of devotion that is used like fine gold. I pray that as you follow this path, you will enjoy God's gr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항상 기도하는 자(눅18:1-8) 2003.11.26 수

격변하는 시대에 "항상 기도" 신자로 변화 받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를 왜 요구하셨는지를 알아보시다. 한마디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도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한마디만 해도 권위있는 것인데 직접 명령하시고, 비유로서 클로즈업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항상(always)"이란 말은 중단 없는 기도, 무시간적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도한 것을 항상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다니엘, 가정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고넬료. 초대교 회를 세워나간 베드로와 요한, 교회의 문제를 지혜와 덕으로 해결한 야고보는 모두 상 기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에는 낙망치 않는 기도입니다. 낙망이란 항상 기도의 방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다 되어오고 문제는 더 꼬이고 응답이 없을 때 기도마저 중단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는 대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하시니라" 주님은 믿음 으로
 낙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 6절처럼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사 건이고,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낙망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 다. 그러면 항상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주님
 비유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 응 답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도해야하는 지를
 배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1)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차이를 가져왔나요? 자기 의 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자기 자랑이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느냐?의
 차이는 응답 에 영향을 직접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화인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겸손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주님 앞에 자주 나가야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갔습니다. 거절당해도
 또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괴로워서 그 간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합니다. 부흥을 구하고, 영혼구령을 구하고,
 신앙성장을 구합니다. 주님 에게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맡기면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3) 믿음의 입 을 넓게 벌려 구해야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믿음 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81: 10절).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히, 자주, 믿음으로 항상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Those who always pray (Luke 18:1-8) 2003.11.26 Wed

In times of turbulence, being transformed into a “prayer always” believer is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any other work, so if you want to be used in the work of the Lord, you must always be a person who prays. First, let us find out why He always required prayer. In short, all prayers are definitely answered. If it is not answered, it is not a prayer. You must pray with confidence because you can quickly receive answers to your prayers. Just saying,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is authoritative, so why did he give a direct command and use a close-up as a metaphor? The purpose was to arouse the disciples' desire for prayer. So, in verse 1, “You must always pray and not give up,” there are two points of emphasis. First, the word “always” refers to prayer without interruption, prayer without time. For example, if Daniel prayed three times a day in the same place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said that he always prayed. This is because only prayer always ensures an encounter with God. Because God used people like this. Daniel was able to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in Babylon, and Cornelius not only saved his family but also opened the door to missionary work to the Gentiles. Peter and John, who founded the early church, and James, who solved the problems of the church with wisdom and virtue, were all prayerful prayers. Next, always pray without giving up in prayer. Discouragement is always one of the obstacles to prayer. When time is running out, problem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here is no answer, it is easy to fall prey to the temptation to

stop praying. That is why our Lord told us to have faith instead of being discouraged. Verse 8 says, “I tell you, he will avenge them quickly.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The Lord is telling us to pray and not give up in faith. 11: As in verse 6, “go forth believing that he exist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We must have the spiritual tension to pray. The fact that the living God is now listening to my prayers is a truly mysterious event, and it is a serious mistake to say that there is no tens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directly solving a real-life problem. No matter how discouraged you are, if you are always praying, you have hope. So how can you always pray? In the Lord's parables, we learn how to always pray until we get an answer to our prayers. How do we pray? 1) You must go out with a humble heart. What difference did the prayers of the tax collector and the Pharisee make? Is it self-righteousness or God's righteousness? The difference between whether he was bragging or admitting he was a sinner and moving on directly affected his response. I hope you all believe that a humble and obedient heart before these words is the greatest treasure and start humbly from there. 2) We must come before the Lord often. The widow in the parable went to the unjust judge to seek redress. Even though he was rejected, he went back again. At that time, this man was distressed and listened to his plea. Compared to that, our God is righteous and we seek what is in accordance with His will. We seek revival, salvation of souls, and growth in faith. If you take this to the Lord and entrust it to Him, He will surely answer you. 3) We must open our mouth of faith wide and seek. Like the prayer, “Please grant me my vengeance,” we must pray with faith. This is because the Lord hears the prayers of our lips. (Psalm 81:10). To

receive the grace prepared by the Lord, pray humbly and often. , I hope you will always enjoy the blessings of prayer through faith.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쉽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진행되는 섬김의 리더쉽입니다. 이것의 본을 우리주님의 생애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리더쉽은 교회의 리더쉽 이었고 주님이 일하신 사실이 교회역사가 증거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의 베드로의 리더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섬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절을 즉시 사양하는 겸손의 리더쉽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부으심으로서 그의 권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째, 그것은 기도의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9:2836절에 한 산에서 일어난 주님의 변화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섬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을 따라 갔고 주님은 기도하는 중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고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제사이며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봉사로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특히 기도로 섬겨야합니다. 디모데전서 2:1-3절에 말한대로 기도로 섬길 때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압박강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먼저 변하고 원수인 에서가 변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기도의 섬김이 없음으로 징계를 받아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한나는 기도의 섬김으로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섬김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 해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말고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 유대주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그를 사용하셨고 다니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 도하는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란 하나님의 통치력 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왕권이 나타나고 권위가 드러납니
 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는 화해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지시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의 세계 속 에서 되어 가는 것이 주님의
 일임을 분명히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변화 산의 주님은 그의 재림의 왕권을 기도하는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용모가 변했고 십자가(별세)를 통해 구속을 이루 실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의 구속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황황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섬김을 배우지 못한 그들 은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통해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들이 배운 것은
 기도의 영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은 기도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된 것입니다. 용모가 변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렸으며 귀신이 도망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 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운 즈(E.M.Bound)가 말한대로 "성령의 시대란

기도의 시대란 입니다." 감사의 절 기에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Leadership in prayer (Luke 9:28-36) 2003.11.12

The leadership taught in the Bible is servant leadership that begins with the authority given by God and proceeds with the ability given by God. The life of our Lord provides a good example of this. Because,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is leadership was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and church history testifies to the fact that the Lord worked. Peter's leadership in Cornelius' family showed humility by immediately refusing to bow to Cornelius, even though he had the highest authority to obey and serve God's commands. Then, God established Peter's authority by pouring out the Holy Spirit when he testified the gospel. How is this established? First, it is established through the service of prayer. The Lord's transformation on a mountain in Luke 9:28-36 taught his disciples the service of prayer. Three people followed the Lord, and while he was praying, the Lord changed. Change occurred in the disciples who saw this, and they learned the correct attitude toward prayer. I learned well that prayer is a sacrifice and that prayer is a fragrant offering that God accepts and responds to. We serve the Lord with material goods and services, but we must especially serve Him with prayer. As stated in 1 Timothy 2:1-3, when we serve through prayer, we change ourselves and change others. When Jacob prayed in the river Abbok, he himself changed first, and then his enemy, Esau, changed. Although Eli was a priest, he was disciplined for not serving in prayer and died of a broken neck, but Hannah became a worker used to save Israel from sin through serving in prayer. This is because spiritual

leadership is established through the service of prayer, and the Lord works through those who pray. Although there were many smart people other than Cornelius, God used him to break down the barriers of Judaism. Although there were people better than Daniel, God used the praying Daniel in a precious way. second. It is established as an answer to prayer. Authority refers to the center of God's ruling power. When God rules, kingship and authority are revealed. But this is established through words and prayer. In Cornelius' family, Peter testified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He was guided by the Holy Spirit in prayer, instructed by the Holy Spirit in prayer, poured out grace and experienced gifts. Looking at this, we clearly learn that what is being done in the world of prayer is the Lord's work. That is why the man of God worked hard to pray without ceasing. The Lord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revealed the kingship of His second coming in prayer. His appearance changed and he revealed himself as the Lord who would achieve redemption through the cross (passing away). Moses and Elijah also testified to the Lord's redemption. The disciples fell into spiritual despair. However, they were full of mistakes because they did not learn this service of prayer.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his ministry was accomplished through prayer on a different level.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prayer. What the disciples learned was the spiritual power of prayer. With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y lived in the spirit of prayer. It was a different experience of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His appearance changed, he enjoyed indescribable and glorious joy, and he performed miracles such as demons running away and the dead coming back to life. The resurrected Lord was holding on to them. As E.M. Bound said, "The age of the Holy Spirit is

the age of prayer.” Let us restore prayer during the season of thanksgiving. I pray that you will become people of prayer and be used by God.

기도 없는 신자(약4:1-3) 2003.11.5 (수)

사랑 없는 은사가 모두 헛된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의 분량에 비해, 기도시간 이 적으면 우리는 팽리나 소리나는 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야고보는 "수고가 들어가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하고(1:5),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간절히 구하면 엘 리야처럼 응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함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기도 없이는 비참한 신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하나님나라는 세상 지혜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미 하나님 나라 에 들어 온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수 있음을 보 입니다. 그래서 약3:1318절은 위로 난 지혜"와 아래서 난 지혜"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의 지혜로 살라고합니다. 그러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지혜로 살면 무슨 일 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만족에 거하고, 마귀의 일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도 기도없이 하나님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 족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라고 가르쳤습니다.(마6:33)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법 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도에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합 니다. 이런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끊임없이

물려오는 불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Times 지에 나온 샌 디애고 주택지를 둘러싼 불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불안 투성입니다. "싸우는 정욕"이 불처럼 일어나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질식시켜 평강과 은혜대신 모든 다툼"과 살인과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 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빌4:6-7) 왜냐하면 기도없는 정욕의 토양에서 세속적인 잡초가 생겨나고, 기도 없는 마음에 독버섯 같은 생각들이 돌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사나와 거짓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만일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다가 분산된 마음이 되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겔11:19절) 그러므로 이런 정욕을 이기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주어진 말씀을 따라 기도의 수고를 드릴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째,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한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는 말은 직역하면 요구하지 않는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NTV) 기도하는 것만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Ask 하면 Have 한다는 말보다 Work 하면 Have 하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영적 법칙을 따라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주님과 교제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 준비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Believer without prayer (James 4:1-3) 2003.11.5 (Wed)

Just as all gifts without love are in vain, if the prayer time is too little compared to the amount of work to be taught and conveyed, it can become a ringing bell or a clanging brass. James, who knows this well, teaches “prayer that takes effort.” It is said that if you pray even when you lack wisdom (1:5), pray when you are suffering, pray to be healed, and pray earnestly even when you encounter impossible tasks, you will receive an answer like Elijah. Even in today's message, the reason you do not get it is because you do not pray. He says, "The reason you cannot get it is because you ask wrongly for the purpose of spending it with affection." You can enjoy God's grace only with the effort of prayer, but without prayer, you can remain a miserable believer. Why is this? First, the kingdom of God cannot be lived with worldly wisdom. This is because the text is a word given to the people who have already entered the kingdom of God, and it shows that they can live there only with God's wisdom. Therefore, James 3:13-18 distinguishes between the "wisdom that comes from above" and the "wisdom that comes from below." It means to live with wisdom, because if you live with worldly wisdom, you will only be satisfied for a time and establish the work of the devil. At first, the apostles, including Peter, would not seek the kingdom of God without prayer. I thought I could achieve it, but I did not truly know the kingdom of God enough to seek the restoration of Israel. However, the Lord taught us that what we should seek first is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Matthew 6:33)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hese things when we serve the church. Rather than doing

a lot of things, you must learn to do it the way the Lord wants. Second, you must put in a lot of effort in prayer. Second, you must overcome the constant anxiety. Because, like the people trapped in the fire surrounding the San Diego residential area featured in the Times, our lives on this earth are full of anxiety, where “fighting passions” rise like fire and suffocate our reborn souls, replacing all peace and grace. “Strife, murder, and jealousy” appear. So James says that if you don’t pray, you can’t escape this quagmire. If you want to find true peace, spend time in prayer. (Philippians 4:6-7) This is because worldly weeds grow in the soil of lack of lust, and thoughts like poisonous mushrooms grow in a prayerless heart, and if the Lord does not give grace, it becomes a stone. Likewise, a hardened heart and a scattered heart will lead to conflict and strife. (Ezekiel 11:19) Therefore, to overcome this kind of lust, you can overcome it by going back to the Bible and devoting the effort of prayer according to the given words. Third, because you can't get anything good. In the second half of verse 2,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which literally means that you cannot have what you do not ask for. (NTV) It also means that you can only get what you pray for. We who are more accustomed to saying, “If you work, you have,” rather than saying, “If you ask, you have,” we must follow the spiritual law that goes from faith to faith and from grace to grace. Because the Lord has provided all our needs and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receive them if we only go out through Christ. Moreover, this shows the heart of God who so desires fellowship with the Lord. Pray to make your own all that has been prepared for you in Christ. The Lord will surely give the best to those who ask.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엡5:18-20) 2003.10.29 (수)

기도의 고전을 남긴 E.M.Bound 는 기도 of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인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은혜의 공급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첫째,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10-11 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하는 이유 두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 하나는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시로 마귀의 꾀계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산불의 번짐과 같아 저기 있던 것이 어느 사이에 내게로 와 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아울러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으며 생명 없는 골동품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정미로운(tested)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언행심사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세계에서 이런 꾀계를 분별하는 요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탐욕적인 것.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거짓교훈을 좋아하는 것. 십자가 없는 복을 추구하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두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되어야 합니다. (빌4: 6-7) 무릎을 꿇고 하든 일어서서 하든, 금식하든. 철야기도하든 분별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간질병 걸린 한 아이의 아버가 주님께 관해 가진 불 신앙은 어떻게 치 료되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 와달라 (막9:23절)고 한 것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강건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것만을 해결하는 예방약이 아니라 원수의 능력을 멸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 해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입 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갇혀 어려울 때 교회는 무얼했는가요? 모여 기 도했고(행12:5절) 베드로의 고가 절로 풀려지고 옥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몰랐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부흥이란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건강한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습 니다. 기도함으로 은혜의 강건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말씀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필요합니다.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성도를 위한 기도이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효과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만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 이 열려지는 조명"(lumination)이 풍성해 진다는 말입니다.(시편119:18) 사 역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담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 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We need people of prayer (Ephesians 5:18-20) 2003.10.29 (Wed)

E.M.Bound, who left behind a classic work on prayer, said that the reason people of prayer are needed is because the Holy Spirit does not work in people without prayer. He also asserts that the reason Jesus' ministry was effective was because he was a man of prayer, and that the supply of grace through which angels ascend and descend is prayer in the Holy Spirit. Just thinking about this makes me realize how necessary it is to become a person of prayer. First, a person of prayer is needed to be able to resist the devil's tricks. If you look at verses 10-11. There are two reasons why we must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one is necessary to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power, and the other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sist the devil's schemes. The reason why we need to pray in the Holy Spirit all the time is because the devil's tricks come to us all the time. It's like a forest fire spreading, something that was there can suddenly come to me and become my problem. So we must go out with the weapon of prayer as well as the Word. Even if you have everything else, if there is no prayer, the Holy Spirit cannot work and it becomes a lifeless, antique faith. This is because when we pray with sincerity (tested), we gain discernment in our words and actions. There are a few tips for discerning these tricks in the world of prayer. Not acknowledging the sovereignty of God, being self-greedy. Not having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 love of false doctrine. Pursuing blessings without the cross. Anything without dedication comes from darkness. The way to overcome this is to take

the time to cry out to God and overcome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we must present ourselves to God through all kinds of prayers and petitions. (Philippians 4: 6-7) Whether kneeling, standing up, or fasting. Whether you pray all night, you must gain the wisdom of discernment. How was the father of an epileptic child cured of his disbelief in the Lord? Asking for something to be done if you can means, 'I believe.' Just as asking God to help me with my unbelief (Mark 9:23) changed while talking to the Lord, we can change it through prayer. second. We need people who pray for strong faith. Prayer is not a preventive medicine that only solves negative problems, but an offensive weapon that destroys the power of the enemy and conquers it. So, verse 18 says, "Pray for all the saints." The reason we pray for all the saints is because the Holy Spirit wants to operate and lead the church. What did the church do when James was martyred and Peter was imprisoned and in difficult times? They gathered together and prayed (Acts 12:5), and the prison door was opened. Peter did not know this, nor did the people who prayed. Third, verse 19 says, "It is necessary for me to see fruit in the ministry of the Word when I have the strength of grace through prayer." "Give me the word so that I may open my mouth and boldly declare the mystery of the gospel" is a prayer for believers as well as a prayer for ministers of the word. It is for effective ministry. Only when the Lord gives us the word can we preach it right away. The Holy Spirit comes. This means that the illumination that opens the word becomes abundant. (Psalm 119:18) Prayer is desperately needed because ministers must receive courage to spread the word. "Pray also for us, that God will open to us a door for preaching,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 for for this I am a prisoner" (Colossians 4:3)

도피성의 은혜 (민35:9-25) 2003.10.19 (주)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조용히, 겸손히, 진실되이 따르면 가장 복된 자리에 반드시 나아갑니다. 특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책의 문제를 진단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 그를 겸손히 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 구원의 모습을 도피성제도를 통하여 보여주며 자주 일어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고살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고살자와 오살자를 구분합니다. 고살자(16-21절)란 철, 돌, 나무 연장으로, 기회를 엿보아 남을 밀쳐 죽이거나, 원한의 손을 들어 죽인 경우를 가리킨다면 오자란(22-23) 원한이나 기회를 엿봄 없이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 즉, 과실 치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 훼방 죄와 짐짓 죄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일18절) 감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내게 엄습할 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인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 즉시 주님에게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악은 "독"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역대하7: 12-15절에 가뭄, 메뚜기
 2일. 백성이라 일리 내 박장아이 도 안해서 따로 있다 그리 아 기로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피난처로 6곳에 만들어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따라 올 수
 없기에 보호가 되고 대제사장 이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안에는 정죄 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의인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넘어 질 때마다 요일1: 9의 가르침을 따라 죄 고백을 하십시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보혈 로 씻음 받음을 믿고 간구하여 순전함과 참마음으로
 변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 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잃어버릴 때
 율법주의, 열정주의, 외식주의, 지식주의가 팽 창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기초가 무너진 셈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 거행하는 성찬 의식을 통하여 도피성되신
 그리스도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주님의 공로를 감사함으로서 고백되지 않은 남은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연합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피난처이신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그럴 때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

Grace of the City of Refuge (Numbers 35:9-25) 2003.10.19 (Note)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 guides us into the truth, so if we quietly, humbly, and sincerely follow His guidance, we will surely reach the most blessed place.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I must humbly welcome him in order to diagnose and heal the problem of sin and guilt within me. Holy Spirit, come! This is because the Lord bore all these curses on the cross. What amazing grace! This text shows the salvation of Christ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the city of refuge system and teaches how to deal with the frequent problem of sin. first. A born again Christian must know that he cannot be a murderer. The text distinguishes between those who commit murder and those who commit murder. A murderer (verses 16-21) refers to someone who uses iron, stone, or wooden tools to push others to death when they see an opportunity. If it refers to a case of killing by the hand of a grudge, Ojaran (22-23) refers to a case of accidental killing without grudges or looking for an opportunity, that is, a case of manslaughter. The reason a Christian cannot be a murderer is because the Holy Spirit holds him back.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cannot stand in the position of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or willful sin. When we commit a sin, the Holy Spirit grieves and groans, so we have no choice but to repent. He is not deceiving himself when he says he has no sin (1 John 1:8), but a feeling arises. Whenever this happens, in order to escape from sin, I flee to the city of refuge when the lines of death and the flood of injustice come upon me. This is because the Lord has resolved everything and is waiting for us. Second, we must take refuge in Christ, who is our city of refuge. A Christian who is not a murderer but a murderer can immediately take refuge in the Lord when he falls. This is the gospel. Because sin is like a “poison,” it inflicts fatal wounds on us. 2

Chronicles 7: 2 days of drought and locusts in verses 12-15. The promise, "If the people do not pray and seek my face,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is meant to be revealed as more abundant fruit in Christ. The city of refuge is a kind of city of refuge. It was created in six places and anyone in the land of Canaan can escape there and be protected because the enemy cannot follow them, and when the high priest dies, there is no condemnation in it, and there is no condemnation in it. It means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and you can become a righteous person and go before God with confidence. So, whenever you stumble, confess your sin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1 John 1:9. Please believe and pray to be washed by the precious blood and be transformed with a pure and true heart. When the church in Ephesus lost its first love, its foundation collapsed because of the lack of love. Because there is no lov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as been stopped. Through the Holy Communion ceremony held today, we hope that you can confirm that you are in Christ and enjoy the freedom within Him by thanking the Lord for His works. Please repent of your sins and seek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you will receive the grace of being deeply united in the Lord's death and resurrection. When you do this, take refuge in the Lord, who is your refuge. Trust in the power of Christ's blood and the Lord will renew us (*).

기도의 본질(사58:9-12) 2003.10.8 (수)

바운즈(E. M Bound) 의 "기도의 무기"라는 책에 보면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 의 도움에서 제외되며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분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 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만 기도 없는 교회는 모든 종류의 죄악 이 득실거리며 기도를 2차로 돌리면 하나님을 2차로 돌리는 것이란 말들은 모두 기 도의 본질을 다룬 것입니다.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이 기도이며, 기도의 무 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기도로 찾아오는 풍성한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본문은 이사야가 이 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저지르는 가증된 모습이기 때문에 외식을 회개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가요? 8절에 보면 1) 네 빛(마음)이 아침같이 비취며, 2)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말4:3). 3) 네 의가 네 앞에 행하며, 4)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10-11절에는 1)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고 2) 마른 곳에 서 영혼을 만족케 하며 3 너를 물 동산, 샘물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 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그릴 때 우리 마음에는 기도 의 욕구가 돋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기도하 지 않는 악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것이나 기도 없이 치료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도 기도함으로 치료되었 습니다. 선지자를 돌보는 가정인데도 아들이 죽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능 력을

믿은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강청했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그 위에 올라 끌 어 안고 간구할 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것입니 다.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했음을 봅니다. 주님은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믿고 주께 나가십시오. (마7:7-8)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보입니다. 1) 대화가 기도 입니다. 네가 부를 때(call) 응답하리라는 것입니다. 2 부르짖는 것(cry)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영혼의 탄식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 고 재판장을 찾아와 기도한 것처럼 번거롭게 하는 그의 원을 풀어주었듯이 천부 는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부르짖음,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부르짖 음처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금식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이 커해도 하나님과만 상대로 부르짖는 기도라야 응답됩니다. (마6:6) 3) 회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데도 이스라엘은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 셧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하나님 관계에서(13-14) 안식을 바로 지키지 않는 것 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람관계에서(3-4) 남을 압제하고 명예를 메이우고, 허망 한 말을 하며, 손가락질하며, 오락을 좋아하는 것이 제거되어야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양심적인 기도가 일어날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대화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에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외치는 것입니다. 사 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상대로 부르짖는 것 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The Essence of Prayer (Isaiah 58:9-12) 2003.10.8 (Wed)

In the book “Weapons of Prayer” by E. M Bound, there is a saying: “A life without prayer excludes God from helping and makes Him unable to help.” The saying that a church that prays can follow God's will, but a church without prayer is full of all kinds of sins, and that turning prayer second to God is all about the essence of prayer. Through this text, Isaiah shows what prayer is and how to use the weapon of prayer well. First, what are the abundant blessings that come through prayer? This text is Isaiah urging Israel to repent. We warn you to repent of hypocrisy because that sin is an abomination of committing all kinds of sins even though you say you are fasting and praying. At the same time, he promises that if you repent of your sins and pray, amazing grace will come to you. What kind of promise is this? Verse 8: 1) Your light (heart) shines like the morning, 2) Your healing will be rapid (Malachi 4:3). 3) Your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you, and 4) the glory of the Lord will guard your back. In addition, verses 10-11 say that 1) He will make darkness like the day, 2) He will satisfy the soul in dry places, 3 and He will make you like a watery garden and a spring of water. Just thinking about it is an amazing grace and blessing. When we picture this in our minds, the desire for prayer is awakened in our hearts. Although we believe that it is good to pray, we have an evil chronic disease that causes us not to pray. Healing while praying and healing without prayer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Elisha healed the Shunammite woman's son, he was cured through prayer. Even though it was a family that cared for a prophet, a

problem arose where the son died. Believing in the power of her prayers, the woman sought out Elisha and pleaded with him. As Elisha himself climbed on top of her, held her, and prayed, the Lord worked. Prayer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Even when she heals the centurion's servant, she sees grace come when she prays and obeys with faith in only her word. The Lord praised him, saying, "I have never found faith like this." If you have a problem, believe now and come to the Lord. (Matthew 7:7-8) There is an amazing answer. Second, how do we pray? The text reveals three facts. 1) Conversation is prayer. When you call, I will answer. 2) Crying is prayer. This is the soul's lament for the Father. Just as a widow came to the judge with an unfair complaint and prayed to resolve her grievance, the Heavenly Father listens better. Prayer is asking like Hagar's cry or Hannah's heartfelt cry. However, you can fast and not pray. It is possible to commit sin while fasting. Even if your fasting is severe, your prayers will only be answered if you cry out to God alone. (Matthew 6:6) 3) Repentance is prayer. Even while fasting, Israel did not harden their hearts. So the Lord called for repentance. What kind of sin is it? In a relationship with God (13-14), not keeping the Sabbath properly is a sin. And in human relationships (3-4), oppressing others, putting a yoke on them, and speaking empty words. Fingers are pointed, and the love of entertainment must be eliminated. When this kind of conscientious prayer arises in our hearts, the Lord gives us the Holy Spirit as a gift and gives us grace. The essence of prayer lies in the children's conversation and cry to their Father. In front of Abba Father. We shout out whether it is easy or difficult. Rather than being conscious of people or the environment, we are crying out only to God. Please pray like this.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사64:1-4) 2003.10.15 (수)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생활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양도하는 삶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되는 생활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산들이 진동하고(3) 불이 쏘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이며 산들이 진동하며 원수가 그 위엄에 놀라고 열방이 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한 것이란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월권함으로 가져오는 영적 비참함이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개인 영적 생활도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관계와 교회생활에도 성령의 열매보다 육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생활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합니까? 첫째.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개인 신앙 성장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영화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되어있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히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성장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죄가 근본문제이듯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죄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보여진 것을 보면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1) 반드시 거룩해야하고 2) 피 흘린 일은 피 흘림으로 도록 되었고 3) 이스라 엘과 주님을 위해 그 땅은 거룩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민35:9-15)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아란 것을 가리키는데 신앙성장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것을 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일하기 때문에 이 교묘한 일을 주님에게 맡겨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그의 은혜를 기다려야합니다. 둘째,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한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합니다. 교 회의 연합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닮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생활에 하나님이 일하 시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경우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요? "기도부인은 하나님 부 인이고 기도인정은 하나님인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하 7:12-15절)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를 움직이는 것도 기도입니다. (계8:1-5) 환난 날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주 십니다. (시50:15)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라"는 약속은 지금도 효력을 발합니다. (막11:23-24)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산 과 뿔나무는 기도로만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밭 까부는 마귀의 역사를 기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주님에게 드림으로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시 기를 축원합니다.

Let God do the work (Isaiah 64:1-4) 2003.10.15 (Wed)

In a strict sense, a life of faith is a life that allows God to work rather than doing anything for oneself. It can be said to be a life that hands over the steering wheel of life to God. This is because it is God who begins a good work in us, desires and carries out it, and is able to accomplish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Specifically, this is nothing other than a life that begins with the Holy Spirit and is completed by the Holy Spirit. Today's text shows the phenomenon that occurs when God Himself descends. It is said that the mountains will quake (3), fire will burn the brushwood, fire will boil the water, the mountains will tremble, the enemies will be amazed at its majesty, and the nations will tremble. This shows God's work beyond imagination. However, it is said that the reason God works with such power is for "those who wait on Him." This means that He works for those who pray. Today, I don't know how much spiritual misery I bring about by exceeding my authority rather than allowing God to work. This is because our personal spiritual lives are growing abnormally and are not in the image of the Lord, and when we see the fruit of the flesh rather than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n 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urch life, we can see that it is a completely different life. What do you need to learn to pray humbly? First, let God work in your personal spiritual growth, even if it starts with rebirth. Our lives must be completely surrendered to God, because healthy faith growth is the most important area, just as sin in Canaan is the fundamental problem. Sin within is

a fundamental problem, as seen in the city of refuge system: 1) it must be holy, 2) blood was shed, and 3) the land must be holy for Israel and the Lord. (Numbers 35:9-15) This refers to the self of those who have been saved, and it is the most dangerous enemy in the growth of faith. It is always at work, so leave this subtle work to the Lord. Second, when we think about this, we must humbly pray and allow God to work in church life. The unity of the church is achieved through receiv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glory of the church lies in imitating Christ. It should be .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working as God? “It is said that a prayer wife is a wife of God, and recognition of prayer is recognition of God. (2 Chronicles 7:12-15) It is prayer that moves God, people, and angels. (Revelation 8:1-5) If you pray in the day of trouble, the Lord He answers us (Psalm 50:15), and the promise, “Ask whatever you wish in my name, and it will be granted to you” is still effective (Mark 11:23-24). It can only be transferred through prayer. Therefore, please offer yourself to work as God in the church life by humbly kneeling down in prayer and offering yourself to the Lord. Best wishes.

성령세례사건(행10:44-48) 2003.9.21

성령의 능력의 세례란 회심과 중생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인 치삼' 부심', 임하심'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약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일하고 예언하고 싸우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교제에 임해야 되며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24일 오전 9시15분 전. 런던 올드게에서 루터의 로 마서 주석 서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읽는 동안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 야한다고 느꼈다. 나의 죄와 나 자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2년 전. 1736년 5월24일 새벽 3시경에 약 60 명이 피터레인에서 모여 애찬을 나누고 있던 새벽 3시경,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능 력이 강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많은 사람이 땅 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 신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옵니다.(1739년 1월 1일 웨슬레의 일기 중) 이것이 성 령의 능력의 세례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세례 사건(Event)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자기가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10장은 성령 세례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세례를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중생은 비경험적이라면 성령세례는 경험적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 습니다. (11:15.16.17) 자기가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령 충만 상태를 "노래하는가?". "순종하는가?" 감사하는 가?"를 살핍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를 선정할 때도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를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핍박과 부패와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성령의 부으심은 더 뚜렷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거스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남이 알아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성령받은 것을 보고 놀라고 46절에 베드로가 거리낌없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는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자 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였고 폭풍우 같은 소리가 들렸으며 온 집이 진동했습니다.

(행2:4.4:31.6:8,10.17)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이며 온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보인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모임에 참여할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압도하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웃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성령충만을 받으시라.

Holy Spirit Baptism Event (Acts 10:44-48) 2003.9.21

I told you that baptism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clearly distinct from conversion and rebirth, and is something that gives you confidence in your faith. The Bible expresses this as a seal, ‘bringing’ and ‘coming’. To put it simply, you can think of the Old Testament judges and prophets working, prophesying, and fighting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and worship. Prayer, evangelism. volunteer. You have to engage in fellowship and you have to have the oil of the Holy Spirit to do it properly, otherwise you can start with the Holy Spirit and finish with the flesh. John Wesley on May 24, 1738, at 9:15 a.m. I felt my heart warming as I read Luther's preface to his commentary on Romans in Olde London, where he described the transformation that God works through faith. He reports, "I felt I had to trust in Christ alone for salvation. I was confident that He had saved me from my sin, from myself,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But two years before that. On May 24, 1736, at about 3 a.m., about 60 people were gathering at Peter Lane for a love feast and praying. It is said that the power of God came so powerfully that many people shouted with joy and fell to the ground. “We praise you, O God. We know that you are our Lord. (From Wesley’s Diary, January 1, 1739) This is the baptism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is is what is happening now in Cornelius’ family. So what is the Holy Spirit baptism event? First, Acts 10 says that the Holy Spirit baptism and rebirth occurred simultaneously.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While rebirth is non-experiential, the Holy Spirit came down to those who humbly listen to the Word. It is an event that has occurred. So, we must check our stat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y examining whether we are singing and whether we are obeying. We who build God's church must seek this grace now. When selecting the seven deacons of the early church, clear

evidence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was a condition. Even in the face of the devil's attacks that cause persecution, corruption, and divisio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ppeared as clearer evidence. An example of this is Ananias and Sapphira, who were filled with lies and rebelled against the Holy Spirit and were killed. Second, it appears as an event that others recognize. In verse 45, we see that the stranger was surprised to see that he had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in verse 46, Peter baptized him without hesitation. This is because it show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came at Pentecost. This fact appears elsewhere in the Bible. When Elizabeth saw Mara, who had conceived Jesus, she felt her fullness. When the Holy Spirit came, everyone was amazed, fearful, and praised the Lord. I saw tongues of fire splitting, a sound like a thunderstorm was heard, and the whole house shook. (Acts 2:4.4:31.6:8,10.17) This is evidence of God's presence and shows that it is an event that affects the entire surroundings. When you participate in a meeting with anger, the grace that overwhelms you to the point where you have no choice but to kneel humbly and pray can be said to be the baptism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et us long for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until the evidence is revealed to our neighbors.

성령세례를 받은 교회(갈3:1-9)

지난번에는 성령세례가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능력의 증거가 없다면 겸손히 그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세례와 중생, 성령세례와 회심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그 축복을 구할 필요성을 알게됩니다. 오늘은 교회 위에 임한 성령세례의 증거에 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등을 통해 그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단교훈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2)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운데서 능력을 행하 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5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세례를 받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에 감염되어 믿음에 덧붙이기로서 행함을 주장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추악한 자리에 떨어진다고 탄식합니다. 성령을 받아 기적을 체험했어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사모하고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확신(assurance)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16-17절) 성령의 인도를 알게됩니다. (18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리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은 이론적인 것으로 머리에만 잠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 인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인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3) 딤후1:14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성령세례 받은 자의 경험이며 로마서8:15-16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일어나며(롬5:5)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벧후1:8) 사도요한도 기쁨 부으이 있음을 말하고 그 사람은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요일5: 16절 이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용물로 생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능 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Church that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Galatians 3:1-9)

Last time, I told you tha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accompanied by power, and that if you do not have proof of that power, you must humbly wait and seek that amazing blessing. To do so, we looked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rebirth,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conversion, through the words of Jesus. Knowing this difference will help you know the need to seek that blessing.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evidenc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upon the church. Is there a church that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Jerusalem Church or Antioch Church. We see that history through the church in Ephesus and the church in Corinth. We want to think about what it was like for the Galatian church that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hat is the evidence that the Galatian church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First, becaus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rose in the Galatian church. They received the gospel during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However, heretical teachings came into their midst. It was an attempt to add or subtract something other than faith. Paul regrets this and says that when he received the gospel, he began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by working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2) “Does he who gives you the Holy Spirit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verse 5) First, preach the gospel to

Abraham, saying,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Therefore, he who is of faith is blessed along with Abraham who had faith.” (verse 8) “That he may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verse 14) In this verse, we see that the Galatian church Second, we can see that it was a church that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difference between faith and confidence was clearly visible in the Galatian church. They lament that they are infected with this and insist on doing things in addition to the Holy Spirit, but end up in an ugly place if they do not continue to desire and receive the power and filling of the Holy Spirit. It is clear that we bear the fruit of the flesh. That is why we need assurance. This is given through the pouring out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tell you,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fulfill the desires of the flesh.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Holy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what you want” (verses 16-17). We come to kn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Verse 18) It is said that the fruit of the flesh and the fruit of the Spirit are clear. (Verse 25) If you live by the Holy Spirit, walk by the Holy Spirit." If you are led by the Holy Spirit, it means following the Holy Spirit step by step. This experience can only be experienced by those who have been baptized by the Holy Spirit. Confidence is not theoretical. In Ephesians, Paul says that the power to protect beautiful things is not something that is written only briefly in our heads, but a seal that is deeply engraved in our hearts (1:13). It is the experience of those who have received it, and in Romans 8:15-16, it is said that God allows us to call Him Abba and Father, and the experience of God loving us occurs (Romans 5:5), and the experience of rejoicing with glorious joy occurs. (2 Peter 1:8) Apostle John also says that he is anointed and that he is a witness (1 John 5:16ff). If

we do not have this experience, we are trying to live as a substitute, which is the problem. This happens a lot and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is lost. If Jesus was anointed by the Holy Spirit to preach and heal,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do the same.

성령세례와 중생(행1:1-8) 2003.9.7 (1부) 성령론(1)

"성령의 능력의 세례에 관해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성령세례와 중생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첫째, 이 구분에 대한 이해가 절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문답에서 성령세례와 중생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성령세례는 중생과 같은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리어 성령세례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교회가 받은 성령세례는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하든 약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분명히 우리 속에 흐르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이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님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령세례를 받으리라"(3)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능력이 임하우는 순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을 받기 전에도 별 쓸 은혜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쁨이 중만하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51-53절)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났어도 이 능력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눅3:2-3) 그러나 바울이 보았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의 세례가 임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12명이 은혜를 받고 오순절의
 경험을 하였고 그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요? 중생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아직 그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여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세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
 야겠다는 사모심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순절이전 이후의
 제자의 구분 짓는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 능력을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 사역을 위해 철저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열매를
 알아야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1)
 주님 증인의 꿈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8절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루 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마28: 19-20절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즉, 가서(전도), 교회를 모으고 (예배),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육) 거듭나면 복음증인의 꿈을 꾸지만
 성령세례를 받으면 증인이 되어있습니다. 깔려있는 일거리를 보고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깔려있는 다이어몬드를
 보고 줍지 않는 사람은 소경 외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 리는 증인이
 되어야한다는 꿈과 비젼으로 충만해야합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비젼인 것입니다. (2) 권능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이 꿈은 꿈으로
 마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화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세례인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이 능력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능력을 보이십시오.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오순절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는 기대하며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rebirth (Acts 1:1-8) 2003.9.7 (Part 1)

Pneumatology (1)

“The reason we are thinking about the baptism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because today’s spiritual leaders and those who teach the Word absolutely need this confidence. For the first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rebirth are the same or different. First,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distinction. In general, we se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rebirth as the same thing. Howeve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at I am talking about is not the same as rebirth. The argument is that this should be viewed 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ecaus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at the church received in the Lord’s heart is accompanied by power, whether it is strong or evil, visible or invisible. This is becau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 driving force flowing within or not, or whether that driving force plays a role. The text clearly shows the command given to the disciples just before the Lord’s ascension to heaven. "(3). This means that there is a moment when the Father’s promise and power is granted. This power i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came at Pentecost. The disciples

already lived a life of grace even before receiving this power. “They did not leave the temple, but they had great joy and peace.” (verses 51-53) If they are not born again, they may not even know that they have this power. For example, the church in Ephesus recognized and received John's baptism (Luke 3:2-3), but in Paul's view, this church did not ha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baptism of power did not occur, so the question was asked,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is Holy Spirit refers to the power and the 12 people who received grace and experienced Pentecost. That was amazing. How do you understand it? If you only think of it as referring to rebirth, you still don't know its power. You have not received baptism in which you are filled with power. I must accept the Lord's command to the disciples in today's text as given to me. You must have a desire to receive this ability. Otherwise, we cannot clearly see the difference between disciples before and after Pentecost. A reborn person must confirm this ability.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must be thoroughly received for ministry. second. We must know the fruits that occur when we receive the sermon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wo things become clear. (1) Have the dream of becoming the Lord's witness. Acts 1:8 says tha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s. The purpose is, “You will be my witnesses.” Jerusalem, Judah. Samaria and the ends of the earth are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of Matthew 28:19-20. It is the work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that is, going (evangelism), gathering churches (worship), and teaching. (Education) When you are born again, you dream of becoming a gospel witness, but when you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you become a witness. How frustrating is it to see people not working because of all the work they have to do? There would be no one but a blind person who

would not pick up a diamond lying on the ground. We must be filled with the dream and vision of being witnesses. This is the vision of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2) You will receive power and work. This dream does not end as a dream. It has to be made real. For that purpose, God has given us power. This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e must receive and work on this power, which is expressed i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the sealing of the Holy Spirit. If you have been giv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show it is powerful. If you cannot see that power, you have not yet received the power of Pentecost. Please pray for this ability now. Please respect your promise and ask for it with anticipation. The Lord will definitely give it.

영광 돌리는 믿음(눅17:11-19) 2003.9.3 (수)

지난 주. 타임지에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빙하가 녹고, 2000년이래 제일 더운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단지 기후만이 아니라. 영계는 더욱 더 혼탁하여 점점 인간 주의의 열기가 극에 달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신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해야 산다"는 표어가 온갖 분이에 먹혀 들어가지만.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경적 신앙마저도 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거쳐야 할 신앙단계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시작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열 문둥이는 자기의 병 때문에 넘기 힘든 율법주의의 담을 뛰어넘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1)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문둥이인데도 부끄워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체면 따지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2) 겸손했습니다. "멀리 서서" 주님에게 나간 것입니다. 무례한 태도가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3) 전폭적으로 자신을 던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외침 속에 우리는 그의 믿음이 귀한 요소를 가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다"는 외침보다 메시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 넘어 복음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사야 61: 1-3절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 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 약 속이 바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믿음에 필요한 기 본
 단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도 주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겸손히, 진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영광 돌리는 믿음이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과
 관계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
 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14)고 했습니다. 그
 즉석에서 깨끗하 게 치료받는 것보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얼 마든지 변명 내지.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쳐준다는 직접적인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고 2)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것처럼(롬6: 17) 순 종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래도 이만큼 된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영광
 돌리는 자 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목표를 잃은 항해와 같습니다. 기적을 얻었다고 치료를 누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은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철저한 실패이지만 영광을 주께만 돌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Faith that gives glory (Luke 17:11-19) 2003.9.3 (Wed)

last week. I saw it in Time magazine. Due to global warming, glaciers are gradually melting, and it is said that this is the hottest time since 2000. Not just the climate. As we live in an age where the spiritual world is becoming more and more turbulent and the fervor of humanism has reached its peak, faith that gives glory to the Lord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motto "You must change to survive" is used by all kinds of people, but we must remember that even biblical faith that gives glory to the Lord does not change. So what is faith that gives glory? This faith contains the stages of faith that we must go through. First, the faith that gives glory to Jesu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beginning. It is a law that the ten lepers find difficult to overcome because of their illness. There are three elements in overcoming the wall of caution and coming to the Lord without shame, even though he is a leper. Those who show off their pride cannot enjoy this grace. 2) It was not a rude attitude to "stand at a distance" but to meet the Lord there by observing the rules. Grace

comes to a humble heart. 3) We can see that his faith had a precious element in his shouting out loud,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Rather than saying, “I am unclean,” they accepted the gospel by going beyond the law. It seems that the promise of the Lord’s anointing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freedom for the oppressed, and healing for the sick is the basic step necessary for glorifying faith. The reason for the problems among Christians today is that they think they can give glory to the Lord without taking this step.

Second, I ask you to go out humbly and sincerely to meet Jesus. This is the stage of obedience. Faith that gives glory mean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obedience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fter meeting Him. The Lord heard their prayer and said,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14). He wanted to experience the grace in the process of obedience rather than receiving clean treatment on the spot. No matter how much this command is, He couldn’t have made excuses or made a direct promise to fix it. Why did he do that? 1) to help us learn obedience, and 2) to reveal the power of the gospel. All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will surely bring blessings. Just as you have become a servant of righteousness by obeying the example of the word in your heart (Romans 6:17), your current life is truly blessed. Third, we must conclude with faith and obedience that we can go to a place of glory when we unconditionally obey the word of God. What an amazing thing it is. However, if it ends, it is not like you have achieved healing by receiving a miracle. The Lord, who received the gratitude of a Samaritan, says, He asked, “Where are the nine?” and then turned to the man and said, “Your faith has saved you.” A faith that gives glory is a faith that saves. Like Paul, all things come from the Lord and through the Lord and come to the Lord. I hope you grow in faith that

gives glory only to God. It is a complete failure to gain glory in this evil age, but giving glory only to the Lord is the way to victory.

무익한 종 (눅17:7-10) 2003.8.27 (수)

그리스도인은 종의 도를 가는 사람입니다. 종의 도란 섬김의 도며 순종의 도를 가 리킵니다. 본문은 이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한 일인 것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의 도를 가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마 고개를 숙이는 태도이고 그의 마음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 게 달려가는 준비된 모습이며 그의 말은 "무익한 종이오니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요한 일서의 말씀에 이미 우리가 죄 사 받고,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약한 자를 이긴 자라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의 도를 잘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의 도를 잘 갈 수 있는가요? 첫째. 예수님을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섬겨야합니다. 예수님을 형님, 친구, 아버지(시6:9)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Lord)"로 인정하는 태도가 분명해야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주로 믿는 일은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은 평생 배워야할 진리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도 주님이요, 소유물에 대해서도 주님이요. 가정 직장에서도 주님이 되시고, 개인적인 기호와 취미생활에서도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현재의 고민 거리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어야합니다. 내가 가진 성공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없는데서 거두고 헤치는데서 거두는

인색한 분으로 알았기에 한 달란트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주인이 주님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주님을 주님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주인을 주님 대접 하는 자가 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합니다. 무익하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성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분을 섬기니까 자칫하면 교만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문제 해결도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명예를 땔때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고전15:10) 은혜의식이 아니면 그만큼 교만해집니다. 은혜받고 함부러 사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물이 통하지 않으면 죽어 가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세째, 순종의 마음으로 섬겨야합니다. 종의 도를 가는 사람은 겸손히 섬길 뿐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요2:)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드릴 때마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해야합니다. 기도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니이다"는 말대로 의무감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를 섬기는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Unprofitable Servant (Luke 17:7-10) 2003.8.27 (Wed)

A Christian is a person who follows the path of servanthood. The way of servanthood refers to the way of service and obedience. The text explains to us, as if drawing a picture, what this way of service is. God taught us that Christians are people who walk the way of servants by showing that it is natural for them to prepare food for their masters even though they are tired after working in the fields. His appearance is probably an attitude of lowering his head, his heart is ready to run as soon as the master speaks, and his words are probably a confession that "I am a useless servant, so I only did what I was supposed to do." In the words of 1 John, we are those who have already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know Him who was in the beginning, and overcome those who are weak. This is a person who has the appearance of a servant. Therefore, Christians must walk the way of servants. How can he follow the path of servanthood well? first. He must serve Jesus as Lord of all his life. Although we use the words "brother, friend, and father" (Psalm 6:9), many problems can be solved only when we clearly acknowledge Jesus as "Lord." Believing in Christ as the Savior is something that anyone can do because it is momentary, but serving Christ as Lord is a truth that must be learned throughout one's life. Even in eating and drinking, the Lord is the Lord. The Lord is also true of our possessions. Christ is the Lord at home, at work, and in our personal preferences and hobbies. We must believe that the

Lord is also the owner of our current troubles. I must believe that the success I have is not mine, but the Lord. Where was the failure of the servant who received one talent? Because he didn't know his owner right away. Because I thought of myself as a stingy person who reaps from nothing and reaps from what I had scattered, I did not know that the Lord was the Lord even in an environment where I was toiling with only one talent. If we look closely, our problems arise because we do not treat the Lord as Lor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Christians who walk the path of servanthood. A person who treats his master like Lord is someone who walks the path of a servant. second. He must serve with a humble heart. The confession that it is 'useless' does not just come out. You can become a faithful servant when you serve the Lord with a humble heart. Because we serve someone high, it is easy to become arrogant and lose humility. Therefore, having a heart of humilit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ose who walk the path of servanthood. Solving the problems of those who work hard and carry heavy burdens is also accomplished with humility. Coming out is humility in itself, and you become humble when you take on the yoke. Therefore, like Paul, we must learn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1 Corinthians 15:10) If you do not have a sense of grace, you will become that much more arrogant. This is because receiving grace and living carelessly is arrogant. Paul said that in order to gain the highest knowledge, he treats everything he has as excrement. Just as a tree, no matter how old it is, dies if water does not flow through it, no matter how great a tradition it is or how solid its faith is, the Lord will reject it if it is arrogant. Third, we must serve with a heart of obedience. A person who follows the way of servanthood not only serves humbly, but also obeys whatever is said. No matter how tired they are, they do what their master tells them to do. The

miracle in Cana occurred when people obeyed the command, “Do whatever your master tells you.” (John 2:) This is the faith of a mustard seed. Every time we pray for intercession, we must do so with a heart of obedience. What you pray for will definitely come true even if there are no people praying for it. I hope that you will believe in and pray for this power of prayer. As the saying goes, “You are an unprofitable servant,” please serve the Lord with a sense of duty and privilege. I pray that you will serve the Lord in all things with a heart of humility and obedience.

산을 옮기는 믿음 (눅17:5-6) 2003.8.20 (수)

"믿음을 더하소서(Increase our faith)"라는 간구는 자신의 약함을 알거나 하나님 의 무한한 능력을 맞볼 때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기보다 제 자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심할 줄 모르고, 죄를 경계할 줄도 모르며 회개한 자를 용납할 줄도 모르는 용서 없는 자리에 빠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 넘치는 삶이나 기적적인 능력의 삶이나?, 십자가이냐 기적이냐?, 인간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나를 구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진 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대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히1:6)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커가 가진 역사적인 믿음이나 돌받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환난과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일시적인 믿음이나, 산을 옮기는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 회개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절대순종하여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구원 하는 믿음(saving faith)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하는 믿음을 구해야하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되지 무엇이 순서이고 질서인가라는 반문을 제기 할런지 몰라도...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일꾼을 선정할 때의 기준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로직분의 5가지 자격조항 즉, 영적 관계를 살피고, 교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심방. 위로, 교훈, 간호하며, 교인 신앙을 감독하고 기도를 하며, 심방 할 자를 보고하는 일들은 한마 디로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장로의 직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러면 이 구원하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까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간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소유하라"(6)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뽕나무도 옮기며. 산도 옮기며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란 굉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일 생활에 실족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뽕나무는 일 년생 식물인 겨자씨에 비하면 6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겨자씨믿음이 뽕나무 같은 문제와 산들을 뽑아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높은 산을 일순간에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히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뽕나무 같은 죄 문제, 산 같은 죄책(중압감)을 단번에 제하는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단순히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 경 읽기, 기도생활,

교회생활(예배, 교제, 봉사), 교제와 증거하는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는 자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이지 기적만을 강조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충만, 말씀풍성, 사명에 불타 섬기는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Faith that moves mountains (Luke 17:5-6) 2003.8.20 (Wed)

The petition, “Increase our faith,” arises when we recognize our own weakness or when we experience the infinite power of God.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is was a prayer born out of the disciples' greed rather than a prayer desired by the Lord. Because they asked for faith that would work miraculous powers. What they needed, as they fell into an unforgiving situation where they did no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beware of sin, or tolerate those who repented, was to be taught a life of true faith. A life full of forgiveness or a life of miraculous power? A cross or a miracle? A life of human glory? He showed a life of true faith while distinguishing between the glory and glory of God. first.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rue faith? Faith in the Bible means “relying on, trusting, and entrusting the truth.” When we say “I believe,” we must always think of the object. It is believing in the Lord and His word. (Hebrews 1:6) This is the basic and then the next. We must live from faith to faith. This is not the historical faith of the marker, or a temporary faith that easily gives up faith when tribulations and concerns come, like the seed that fell on rocky ground or among thorns, or a miraculous faith that moves mountains, but only a repentance initiated by the Holy Spirit that leads to Christ. We must believe, obey absolutely, and go to the place of saving faith that shows His image. We must seek this kind of saving faith, but

we must be careful not to fall into the foolish position of focusing on temporary things and giving everything to them. Even if you go further, you can just go to Seoul. You might raise the question of what order and order are... Is that right? no. Saving faith means always following the word of the Lord. Therefore, the church must make every effort and effort to achieve this. For example, the standards by which the church selects workers also come from the Bible. The five qualifications for the office of elder include examining spiritual relationships, preventing doctrinal misunderstanding or moral corruption, and visiting church members. Comforting, teaching, nursing, supervising the faith of church members, praying, and reporting on those to be visited are nothing other than creating a community of faith that saves. Therefore, unless one receives grace through prayer and the Word, the office of an elder becomes impossible and one becomes a hypocrite. Our church must humbly move forward to achieve this faith. second. So how do we possess this saving faith? The Lord's answer to the plea to increase faith is, "Have the faith of a mustard seed" (6). If you have this, you can also move the mulberry tree. He said tha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even moving mountains. The faith of a mustard seed is not something great; it refers to believing in Jesus and living with Him at the center. It refers to a life of caution, vigilance, repentance, and forgiveness so as not to make mistakes in daily life. This is more precious than showing miracles. The mulberry tree is said to live up to 600 years compared to the mustard seed, which is an annual plant. How can the mustard seed faith cause problems and mountains like the mulberry tree to be uprooted and thrown into the sea? How can a tall mountain be thrown into the sea in an instant? This shows something particularly spiritual. The way to get rid of the mulberry-like problem of sin

and the mountain-like guilt (heaviness) at once is to simply believe in the merits of Jesus. In order to do that, we must be sincere in small things. Those who faithfully engage in Bible reading, prayer life, church life (worship, fellowship, service), fellowship, and witnessing can enter the position of complete salvation. A church worker is someone who has saving faith, not someone who has a strange faith that only emphasizes miracles. I hope you live as a servan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ich in the Word, and passionate about your mission.

주님 승천이후의 교회(눅24:44-53) 2003.8.3 (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초반과 마지막을 서로 연결하여 그 내용을 살핌으로서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순절의 성령충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관해 오순절 전의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충만을 받아 찬송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성령세례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11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또다시 성경을 설명하시고 승천 하셨습니다. 본은 승천 후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성경을 바로 깨달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을 읽다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성경을 잘 믿도록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44-47절은 성경에 관해 무엇이냐 말하나요?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44절)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며(45-46) 그의 이름으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죄사함(47)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바로 깨달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교회로서의 경험에 홀려 넘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일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잡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민수기15:31절이 말하는데 그런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존중될

때 성경은 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식거리로 생각하게
 하는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성경이 열리기까지 그
 앞에 정직하게 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체험주의자가
 되어야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은 교회가 되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합니다. 승천이후 주님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른 교훈을 깨달은 교회는 전인을 지배하는 교훈을 가진 삶을
 보여야합니다.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은 "입히우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으심이 그것입니다. 능력받은 교회의 증거는 큰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성령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해 살
 때 성령충만함이 임하고 전도하고 선교 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시므온처럼 마술쟁이 생각에는 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합니다. 오순절초대 교회가 10일간 기도한
 후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합니다. 가이아나 선교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악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선교의 무대로 삼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승천하신 후
 주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심을 이웃에게 보여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hurch after the Lord's Ascension (Luke 24:44-53) 2003.8.3 (Note)

Since the Gospel of Luke and the Acts of the Apostles were written by the same author, Luke, we can more accurately understand what the Holy Spirit wants to express by connect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examining their contents. Regarding the question of how to view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one of them is that the disciples before Pentecost had the blessed experience of receiving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from the ascended Lord, singing praises, and not leaving the temple, so the event of Pentecost should be viewed 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11 The Lord appeared to the disciples and others, explained the Bible again, and then ascended to heaven. The example shows what the church should look like after the Ascension. first. A church that correctly understands the Bible must emerge. As we read the text, what the resurrected Lord did was to explain the Bible so that we could believe it. This is what Jesus so desired. What do verses 44-47 say about the Bible? The center of the Bible is said to be Christ (verse 44), and the Bible is said to focus 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45-46), and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faith and repentance in his name (47), starting from Jerusalem and all things. He tells us to go and testify among the people. Our church must be overflowing with experiences as a church of those who correctly understand the Bible, believe only in Christ, and receiv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Because this is the church's primary mission. Today, we live in an era where churches built on the Bible ignore the Bible. There are many people who read the Bible. Numbers 15:31 says that those who despise the Word commit sin willfully,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fallen into that position. When the Bible is respected, it opens and speaks to us. When the corrupt mind that makes us think of the Bible as

common sense dominates us, we must stand honestly before the Bible until it is opened. To do that, we must become biblical experientialists. This is because the church that correctly understands the Bible is the church where the ascended Lord Himself works. Second, the church must be seen clothed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at should the Lord's Church be like after the Ascension? A church that has realized the correct teachings must show a life with teachings that govern the whole person. In verse 49, the Father's command is, "Receive the power to clothe you." Wearing this garment of power is what the church looks like. This is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 evidence of a powerful church is that it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orshiping the Lord with great joy and living a life of praise centered on the temple. However, the purpose of giving this fullness is to spread the gospel to all nations. When we live for the gospel,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hen we evangelize and do missions, power comes. This power does not come to the mind of a magician like Simeon. Our church must long for this fullness. Just as the early church at Pentecost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fter praying for 10 days, we must seek this grace through humble prayer. Missionary work in Guyana is difficult work. We don't know how many adverse conditions there are. For that purpose, the Lord prepar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power comes when we make this world a stage for missions. I pray that after your ascension to heaven, you will become a person who shows your neighbors that the Lord lives within you.

어리석은 부자의 전도전략 (눅16:19-31) 2003.7.30 (수)

바이블 캠프와 가이아나 선교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전략을 세워나 가야하는 이 마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옥 부자의
 전도전략을 생각함으로서 성경적 전도가 무엇임을 알고자합니다. 지옥
 고통 속에서도 자기 형제의 구원문제를 생각한 것 은 전도(Evangelism)로
 보기는 어렵지만(28절에는 증거(Warning)로 되어있음) 그 래도 남을
 지옥에 오지 않기를 구한 것은 일종의 전도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문을 사실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지 비유로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 은 전도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역설적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부자의 전도전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자의 전도 전략이 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첫째, 그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 자신이 먼 저 구원받아야하는 문제이지,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된 다음에 전도할 자 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한것은 죄악을 경험한 자만이 구원의 절박함과 애절함과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전도에 매우 간절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감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구원문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요5: 24에서 우리는
 "나의 말 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 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은 많은데 혈벗은 자로 살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 하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영혼 구원이 기적으로만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으나 기적주의는 인간주의임을 알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전도가
 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장모는 기적적 치료를
 받음으로서 봉사했지만, 바울은 가시를 두 고서 주님을 평생 섬겼습니다.
 부자가 생각하기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동생들이 더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사로의 부활을 구했던 것은 그릇된 깨달음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되는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노력 없이 기적 만 구한다면 이것은 인간주의로 나갈 것입니다. 사실상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탐욕주의와 기적주의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 엘처럼 기적을 많이 말하고 맛본 사람이 없지만 그들은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 되게 하고 기적주의, 요행주의,
 한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수많은 수고가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만큼
 정신차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몸소 당하는 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구하는
 그의 요구는 무참히 거절되었고, 도리어 "모세와 선지자를 들을 찌니라"
 (29.31절)는 간단한 말씀을 듣게되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성경이 부활의
 기적 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즉시 변화가 일어났듯이 누구든지 성경으로 나아가 진실히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머물러 그것 따라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 한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전도전략을 통해 전도의 참 지혜를 가지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The Rich Fool's Evangelism Strategy (Luke 16:19-31) 2003.7.30 (Wed)

With the Bible camp and the Guyana mission ahead, we must establish an evangelism strategy that is pleasing to God. By considering the evangelism strategy of the rich man in hell in today's text, we would like to understand what biblical evangelism i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issue of one's brother's salvation even while suffering in hell as evangelism (verse 28 is a warning), saving others from going to hell can be seen as a kind of evangelism strategy. Some people see this passage as an actual incident, while others see it as just a parable, but the fact is that the Lord is paradoxically teaching an important lesson about evangelism here. To do so, we must examine how wrong this rich man's evangelism strategy was. Why was the rich man's evangelism strategy foolish? First, because he himself is an unsaved person. Evangelism and missions are a matter in which one must be saved first. It is very wrong for a person to think that he can save others when he is not saved himself. It is natural that he first becomes a saved person and then becomes qualified to evangelize. That is why it is said that evangelism is something that even angels adore, because on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sin can know the urgency, sorrow, and preciousness of salvation. Although this rich man seemed very earnest in evangelism, in reality he was only very sensual. Therefore, we must first clarify the issue of our own salvation. In John 5:24, we can evangelize and develop evangelism strategies only when

we are confident in the words,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is saved and will not be condemned, but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 Rather than living like the church of Laodicea with a lot of money but poor clothes, we should like to be faithful to God with little ability even though we are poor like the church of Philadelphia. This is because the true work of salvation takes place here. Second, because he understood that soul salv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miracles. We believe in miracles, but we know that miraculousism is humanism, and we are opposed to the idea that miracles must occur for evangelism to occur. In fact, Peter's mother-in-law served by receiving miraculous healing, but Paul served the Lord all his life through thorns. It was a false realization that the rich man sought the resurrection of Lazarus, thinking that his younger brothers would be more likely to believe if Lazarus came back from the dead. Because he thought it would be a miracle. If we only seek miracles without any real effort, this would be considered humanism. In fact, this parable is a warning against the greedism and miraculousness of the Pharisees. No one has spoken or tasted as many miracles as the Israelites, yet they rebelled against the Lord. Therefore, we should like to achieve something through hard work. This is because this is the path that makes us blessed and frees us from miraculousism, flukeism, and hypocrisy. I hope you enjoy and pursue evangelizing dying souls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effort. Third, because reality was ignored. There is probably no one who speaks with more soberness than this rich man. This is because these words were spoken while suffering personally in the fiery pit of hell. However, his request for a miracle was cruelly rejected, and instead he was told simply,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verse 29.31). The Bible in reality is more authoritative than the miracle of resurrection. Just as the

change occurred immediately when the woman at Sychar came before the Lord in reality, if anyone goes to the Bible and truly believes, she is immediately saved. Respect the Bible before you, stay in its words, pray according to them, and go to the point where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hope that through the foolish rich man's evangelism strategy, you will become useful workers with true evangelism wisdom.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눅16:14-18) 2003.7.23 (수)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못지 않게 사람과 돈에 대한 바른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시하거나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하는 경건은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함을 주님이 말씀하셨고(마6:6)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기에 이것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딤후6:11)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이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 안의 자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왜 율법주의가 위험합니까? 율법은 귀하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이용한 우상숭배자가 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바로 알면 자유를 누리지만, 율법주의로 떨어지면 경직된 생활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율법주의가 미치는 세 가지 위험을 말 합니다. 1) 탐욕으로 떨어집니다.(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이나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 하려 할 때 결국 돈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탐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얻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한 후 이스라엘 중 섞여있는 무리가 탐욕을 발하여 불평과 원망을 충동한 것이나 야곱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라반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었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교만으로 떨어집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인간을 추켜세우는 것이나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미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겸손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존경을 받으면 모욕 받을 때와 다름없이 즐겁게 수용하고, 모욕을 당하면 존경받을 때와 같이 즐겁게 수용해야하는 것은 존경은 하나님께 돌려지니까 좋고, 비난은 나를 세 위치게 하기에 역시 좋은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자유를 얻습니다. 3) 음행으로 떨어집니다. (18절) 주님이 갑자기 간음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은 율법주의가 음행으로 떨어짐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음행으로 떨어지는가요?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사람관계에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음행과 관련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본래의 결혼관 율 왜곡시켜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마19:) 결혼의 자유방임 사상은 결국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인 탐욕, 교만, 음행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의 거룩한 열심과 겸손과 순전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이런 율법주의에서의 벗어나는 길은 복음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복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성경)에 착념하여 연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복음의 공격대형을 따라 가야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복음시대의 특징

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주의와 기적주의를 경계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합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약 속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나라를 향한 복음의 공격대형을 따라

Freedom in the Gospel (Luke 16:14-18) 2003.7.23 (Wed)

In a healthy religious life, a good attitude towards people and money is just as important as a good attitude towards God. This is because ignoring people or being too fond of money not only breaks off fellowship with God, but also results in one becoming entangled in oneself. The Lord said that piety that involves giving alms or praying to be seen before others brings no benefit (Matthew 6:6), and the Apostle Paul warned us to avoid the love of money because it is the root of all evil. (2 Timothy 6:11) Today's text shows how dangerous legalists with a wrong attitude toward money are and teaches that the way to escape from that is freedom in the Gospel. first. Why is legalism dangerous? The law is precious, but legalism causes people to oppose God, leave God, and become idolaters who use God. If you know the gospel correctly through the law, you can enjoy freedom, but if you fall into legalism, you will not be able to enjoy freedom and be edified due to a rigid life. So, the text talks about three dangers of legalism. 1) They fall into greed. (Verse 14) When the Pharisees tried to choose between money and God, they ultimately chose money because they were greedy people who loved money. This is because it prevents us from enjoying the freedom of the gospel and binds us to ourselves. After the Exodus, the mixed crowd among the Israelites became greedy, which prompted complaints and resentment, but Laban, who tried to satisfy his greed by using Jacob, was an object of God's hatred and became

the cause of suffering for others. 2) It falls into pride. (Verse 15) The Pharisees were people who boasted about people. However, the Lord said that boasting about people is hateful to God.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omfort and encourage people, but the act of exalting others or boasting about oneself becomes an object of God's hatred. The Gospel always allows us to enjoy freedom in humility. As St. Francis confessed, if you are respected, you should accept it as happily as you would if you were insulted, and if you are insulted, you should accept it as happily as if you were respected. It is a humble belief that respect is good because it is returned to God, and criticism is also good because it builds you up. When you have your own mind, you gain freedom. 3) It falls into fornication. (Verse 18) The reason the Lord suddenly gave a lesson about adultery was to let us know that legalism leads to fornication. Why do we fall into fornication? This is because if a person does not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God, he will not be able to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human relationships. Idolatry is related to fornication. The Pharisees boasted about the law and distorted the original view of marriage, making it chaotic. (Matthew 19:) The idea of laissez-faire in marriage ultimately put the family in jeopardy. I hope that you will enjoy holy zeal, humility, and purity in the gospel and follow that path, freeing yourself from greed, pride, and fornication, which are serious dangers brought about by legalism. second. What is the way out of legalism? The only way to escape this legalism is through the gospel. Coming out with the gospel refers to remaining in Christ. It refers to being disciplined by focusing on the gospel (Bible), which never disappears. To do so, we must follow the attack formation of the gospel. This is because those who know the gospel are trespassing into the kingdom of God. Attacking the gospel is a characteristic

of the gospel era. Whenever we read the Bible, we must be wary of legalism and miraculousism and meet Christ within it. Only then can we enjoy true freedom in the gospel. In order to enjoy the freedom promised therein, follow the attack formation of the gospel toward the kingdom of God.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눅16:1-13) 2003.7.16 (수)

그리스도인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 자체가 산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에 충실한 것입니다. 본 비유는 우리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을 믿기에 순간 순간 충성된 섬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커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9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11절)는 말씀은 기적을 사모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한탕주의 교훈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살아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선한 청지기의식이 가득 차야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정직한 땅 주인이고 청지기는 그 땅을 분할하여 전체를 통제하는 매니저입니다.(Hendrickson) 그런데 이 매니저의 잘못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하자 장래 일을 걱정하며 지혜로운 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청지기는 주인께 위탁받은 일에 책임이 주어진 사실을 늘 잊 지 말아야합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시간에 대한 청지기, 재능에 대한 청지기, 재 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실인이고 레위인이 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모든 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합니다. 실직되어 장래의 삶을 걱정하던 그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 거짓된 방법으로 적당히 빚을 면해주었습니다. 얼핏보면 이것은 탐욕과 사기가 작용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본이 될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주님은 장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뿐입니다. 그는 실직된 이후의 삶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삶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준비해야 하나?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고, 나눠주어야 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없어지는 재물에 충실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식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원리가 아니고 내가 브니엘의 경험을 하니까 저절로 그 영향이 미쳐지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현실주의자입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처럼 현실에 충성할 때 바른 지혜가 생기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실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기적을 사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쏠리도록 나의 인생 구조를 수정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1-13) 2003.7.16 (Wed)

It is natural for Christians to expect miracles because it is itself an expression of living faith. But just as important as miracles is staying true to your present life. This parable shows that faithful service from moment to moment is important because we believe that good or bad things happen with God's permission. "I tell you, buy for yourselves friends through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is gone,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verse 9). The words, "If you are not faithful to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what is true?" (verse 11) prevents the teaching of the one-size-fits-all approach that longs for miracles but ignores reality. How can we live with the right attitude? first. I am filled with good stewardship. The owner in the text is an honest landowner, and the steward is a manager who divides the land and controls the entire land. (Hendrickson) However, the manager's mistake caused damage to the owner. When the owner tries to fire the manager, he worries about the future and makes wise preparations. I don't know why he failed, but a steward must always remember that he is responsible for the work entrusted to him by his master. You must have a sense of stewardship over your body, stewardship over your time, stewardship over your talents, and stewardship over your wealth. Since we who have been saved are Nazirites and Levites, we must make only God our inheritance and live as stewards of all things. second. We need to focus on preparing for eternity. The manager, who was unemployed and worried about his future life, called his debtors one by one and relieved them of their debts by lying. At first glance, it's easy to see this as greed and fraud at work and wonder how an example could be set. The Lord simply praised the steward's wisdom in preparing for the future. He thought deeply about life after losing his job. We must acknowledge that only the Lord is sovereign over everything so that we

do not fall into the position of a foolish rich person who mistakes today's life for our own. You should not live a life that says, "Money is everything." We must focus on preparing for our eternal future. How should we prepare for eternity? First, I must take care of myself, share, and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given to me. I hope you become wise people who live as people preparing for eternity. Third, you must be loyal to the little things of the present. In verse 10, the Lord tells us to be faithful in the smallest things. Just as we are faithful to our perishable wealth, Christians must learn to be faithful in our current circumstances. A two-legged life is truly unfortunate. This is because you cannot serve both wealth and God. The change we hope for is not that if others change, we will change, but that the influence will come naturally as we experience Peniel. In that sense, Christians are the greatest realists. Joseph. Daniel. When we are faithful to reality like David, correct wisdom will arise and true change will occur. As a person who is faithful to reality, let us change the structure of our lives so that we long for miracles and focus everything on God. Let us, who have a heart longing for eternity, live as the wisest people who prepare for eternity.

믿는 자의 표적 (막16:17-20) 2003.7.9. (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진행되며, 기적으로 성취되는 기적사(the History of Miracl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Gospel)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롬1:16-17)누구든 지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고전15:1-3) 표적들이 따르는 이유는(마16: 17) 먼저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19) 다음은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0) 17-18절에는 이 표적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들은 커신을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란 사탄, 마커, 옛 뱀, 공중권세 잡은 자, 악 영으로 인격적 존재임을 말합니다. 커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의심, 거짓, 탐욕, 그릇된 선택, 예배실패, 시기, 분노, 살인,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롬3:10-16) 이런 마커가 주님 이름 앞에 도망간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18절에 뱀을 잡고 그 독에 해함을 받지 않는 것도 마커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만하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귀신들린 마음, 남녀 노유, 가정, 사회의 흐름에서 마커를 제어할 힘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놓여있습니다.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해독시키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 물에서의 해독처럼, 엘리사 시대에 들 오이로 국을 끓일 때 생긴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 처럼, 불뱀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을 해독시킨 것은 모두 주님과 그의 복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독이 퍼져 죽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커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바벨탑사건으로 혼란과 공허 속에 떨어진 인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서 일치된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방언이란 말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소유하는데 있습니다.(31:33-34. 겔36:26)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이루 어야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하고 다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중 심해 하나가 되어야합니다. 부부간에도 새 방언을 말해야합니다. 더러운 말, 거짓된 말, 부끄러운 말, 음란한 말이 아니라 "고마워요. 사랑해요. 천만에요. 잘했어요. 할 수 있어요"라는 긍정적 말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천국백성의 표적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병들 때 손을 얹는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주의 영 이 임하면 일거리를 알게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복음을 받기 전, 병든 자를 두려워하고 무관심하기 쉬웠지만 복음을 알면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치 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료의 약속을 믿고 그 병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 만지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것인가요? 복음은 모든 육체의 질고, 영혼의 질고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우리 는 순종하고, 손을 얹고, 병자가 낫도록 죄를 고백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의 해를 받지 않고, 질병의 고침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만민(all creation)에게 증거된 복음은 이 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합니다. 약속된

복된 장마비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 지금 이 표적을 주장하고 내 것으로 삼아 겸손히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A sign for believers (Mark 16:17-20) 2003.7.9. (number)

A Christian's life begins with a miracle. It happens miraculously. It can be said to be the History of Miracle, achieved through miracles. This is because the Gospel they received itself is the power that brings salvation. (Romans 1:16-17) If anyone believes in Christ and his death and resurrection (1 Corinthians 15:1-3), signs follow him (Matthew 16:17) because first, the Lord ascended to heaven and was victorious (19). This is because the Lord Himself works through His disciples. (20) How is this sign shown in verses 17-18? They chase after Kushin. According to the Bible, ghosts are personal beings such as Satan, Marker, the old serpent, those who hold the power of the air, and evil spirits. What does Cursin do? If you look at the first part of Genesis, doubt, lies. He causes greed, wrong choices, failure to worship, envy, anger, murder, and misdeeds. And he makes a personal spiritual wreck. (Romans 3:10-16) The promise we have received is that these markers will flee before the name of the Lord. In verse 18, picking up a snake and not being harmed by its poison also shows how serious the influence of the marker is. But he can be liberated from there simply by believing in Christ. The power to control the marker in the demon-possessed mind, men and women, young and old, family, and the flow of society lies only with those who believe in the gospel. Also, it will not harm you if you drink poison. This is because the Lord himself deciphers it. Just like the detoxification of the bitter water of Marah, and the removal of the poison of death that occurred when boiling soup with wild cucumbers in the time of Elisha, the detoxification of people dying from fiery

serpents are all demonstrations of the Lord and his gospel. How many people are dying today due to the spread of poison? You will experience the ability to hold on to the gospel and control God's great power with the gospel. They speak with new tongues. Humanity, which fell into confusion and emptiness due to the Tower of Babel incident, emerged with a united mind wit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 term new tongue refers to something found in 1 Corinthians chapter 12, but more importantly, it refers to having a new heart. (31:33-34; Ezekiel 36:26) Therefore, we must be of one mind for the Lord. Church gatherings must have a unified mind and be diverse yet united centered on Christ. Even married couples must speak a new tongue. Instead of saying dirty words, false words, shameful words, or obscene words, you should say positive things like, "Thank you. I love you. You're welcome. Well done. You can do it." This is the target of the people of heaven. They heal the sick. Laying hands on someone when they are sick is itself a sign.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us, we know the task and run towards it. Before receiving the gospel, it was easy to be fearful and indifferent to the sick, but once you know the gospel, you can heal the sick by laying your hands on them and praying. Therefore, we must believe in the promise of this cure, look at the disease specifically, and pray with faith. How glorious is it to have the Lord's hand touch me? The gospel has the power to heal all suffering of the body and soul. We must fulfill the Lord's work by obeying, laying hands on the sick, confessing our sins, and offering earnest prayers so that the sick may be healed. Casting out demons, speaking in new tongues, not being harmed by poison, and being cured of diseases are all proofs of what happen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gospel. Let us know that the gospel testified to all creation brings about this kind of work and seek its

power. How much we are enjoying the promised blessed monsoon rain, let us now claim this sign, make it ours, and become people who humbly reveal the power of the gospel.

주님의 제자 (눅14:25-35) 2003.7.2 (수)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자녀 관계(요12:12-13).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관계(벧전2:9), "주님을 닮는 제자관계 (마28:19-20)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그 중 제자관계를 보이는 본문은 "내 제자'(26.21.33)에게 요구 하는 것들이 소금의 맛과 같이(34-35절) 삶의 목표이며, 생명인 것을 보입니다. 주님 이 요구하는 제자란 무엇이며 그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첫째, 주님제자가 되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 회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 것처럼 제자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어진 은혜로서 닮아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을 두 비유로서 보입니다. 1) 제자는 건축하는 자 라고 말합니다. (28-30절) 망대를 세울 때의 비용을 미리 계산하듯이, 제자가 되기 위 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집 하나 세울 때도 얼마나 수고가 많이 됩니까? 주님 닮는 일은 더욱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제자는 용사라고 말 합니다. (31-32) 전쟁에 승리하려면 거기에 맞는 작전이 있어야하듯이 주님 제자는 영 전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어야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 르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잔치의 즐거움에서 주님의 닮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 리의 목표가 되어야하며 모든 활동의 초점이 되어야합니다. 현재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의 극 목표가 주님을 닮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자신을 드 려야할 것입니다. (요14:21. 15:8) 둘째, 주님제자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 제자의 자격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1) 먼저 주님과 관계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26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 희생관계를 벗어 나는 것이기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워하라"고 한 것을 보면, 방심하면 하나님 보다 더한 사랑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님과 교제보다 앞서 는 교제란 주님 제자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부부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의상 분방할 수 있다고 했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했던 것입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7절) 주님 제자는 자아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생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생활에 자기책임을 팽개치는 것은 주 님의 남은 고난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오는 자유를 누리는 자이지,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적 자율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3)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위 해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전비나 건축비로 모든 소유를 드리듯이 주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해 드려야 합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주권 을 주님에게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자신을 나 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Disciple of the Lord (Luke 14:25-35) 2003.7.2 (Wed)

A filial relationship that shares life with God (John 12:12-13). The relationship of people obeying God as King (1 Peter 2:9) and the relationship of disciples who resemble the Lord (Matthew 28:19-20) are amazing blessings given to each Christian. Among them, the text that shows discipleship is “My disciple.” (26.21.33) shows that what is required of him is the goal of life and life, like the taste of salt (verses 34-35). Let’s find out what the Lord requires of a disciple and what his qualifications are. First,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disciple of the Lord? Just as the Lord washed the disciples' feet and taught them that it is right for you to wash one another's feet, the priority for disciples is to emulate the Lord's character. Of course, we become like Him not through our own efforts, but through the grace given through fellowship with the Lord. The text shows this as two parables. 1) It is said that a disciple is a builder. (Verses 28-30) Just as you calculate the cost of building a tower in advance, you must pay a high price to become a disciple. How much effort does it take to build a house? Being like the Lord requires us to put in more effort. 2) It is said that a disciple is a warrior. (31-32) Just as winning a war requires appropriate strategies, disciples of the Lord must have the wisdom and courage to fight before the spirit. If one does not know what spiritual warfare is, he cannot be a true disciple. Moving from the joy of the feast to becoming like the Lord should be our goal and the focus of all our activities. My current home and work. We must realize that the ultimate goal of church life is to resemble the Lord and offer ourselves for the Lord to appear. (John 14:21. 15:8) Second. What are the qualifications of a disciple of the Lord? The qualifications of a disciple of the Lord show three things. 1) You must first prioritize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Verse 26) To hate

one's parents, children, brothers, sisters, and one's own life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means breaking away from our most basic relationship of love and sacrifice. The phrase "hate" implies that if you are carel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falling into a love relationship that is worse than God. Any fellowship that precedes fellowship with the Lord is unacceptable for a disciple of the Lord. No matter how important a couple is, it is said that "in order to pray, we can agree to be free," and to prevent our fellowship with the Lord from being cut off, we are told to let go of our anger before sunset. 2) It is to take up one's cross (verse 27). Disciples of the Lord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every day. This means that abandoning one's responsibility in relational life is ignoring the remaining sufferings of the Lord. We need to sort things out. We are people who enjoy the freedom that comes from grace, not people who claim human autonomy to do whatever they want. 3) We must give up all our possessions for the sake of the Lord. This is what verse 33 means: "If anyone does not give up all he has, he cannot be my disciple," just as he gives all he has for rain or building expenses. This means that we must surrender to the Lord, because then the Lord can work and reveal Himself.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눅14:1-14) 2003.6.25

에스겔에 나오는 바람과 빛과 물로 비유된 성령님은 언제나 겸손하게 일하셨습니다. 마른 뼈다키 위에 생기가 불때 큰 군대가 되었거나. 성전 동문으로 여호와와 영광이 들어와 온 성전을 가득 채웠거나.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강수가 사해바다를 소성시킨 것은 모두 겸손한 성령의 사역을 보입니다. 그 중, 강수의 비유는 더욱 더 성령의 겸손한 사역을 돋보입니다.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들레거나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히 스며 나와 온 땅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생명이요. 교회생활의 은혜 원천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겸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겸손은 왜 그렇게 귀한가요? 첫째, 겸손은 수시로 돌아나는 외식의 뿌리를 제해주기 때문에 귀합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운지를 1-6절의 사건이 보입니다. 한 고창병자가 치료받을 때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교만한 마음, 외식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보배로운 것을 알게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들은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여 외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의 그릇된 경건 습관은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경문을 넓게 차고, 나팔을 불어 구제하는 것에 익숙한 경건 한 사람들로 통하는데도 그것은 껍데기 경건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그것을 반복하다보니까

습관화되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 소성 과 번성과 치료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예언한 것 입니다. 그리스도안에 무한한 능력이 솟아나는데 왜 우리는 허덕이는 삶을 사는가요? 교 만이 성령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처럼 돌아나는 외식의 뿌리를 끊기 위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서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이 주는 명예를 간직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그릇을 쓰십니다. 겸손의 그릇 위에 축복과 명예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11절 은 초청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초청을 받을 때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 명예. 사람의 명예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명예도 130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겸손을 배운 다음에라야 그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이 절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됩니다. 이민생활의 외로움.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남편과 아내문제, 자녀문제들은 겸손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민족적, 개인적이나 처음 믿을 때나 성장할 때나 언제나 요구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명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째, 겸손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12-14절은 앞의 것과 대조되는 입장을 보입니다. 남을 초청 할 때도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말고, 불구자나 거지들 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고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겨야합니다. 남이 알 아주든 몰라주던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은 씨가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구약의 요셉처럼 겸손한 섬김을 배움으로서 영원한 복을 받아야합니다. 요셉보다 더 큰복이 그리스도안에 있는데 교만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모실 때 외식을 이기고 신령한 명예와 복을 누리게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겸손의 마음을 지켜갑시다.

A person who humbles himself (Luke 14:1-14) 2003.6.25

The Holy Spirit, compared to wind, light, and water in Ezekiel, always worked humbly. When life bloomed on the dry bone, it became a large army. The glory of the Lord entered through the eastern gate of the temple and filled the entire temple. And the fact that the water from the temple restored the Dead Sea shows the humble work of the Holy Spirit. Among them, the parable of the river even more highlights the humbl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ater that flows from under the threshold” is the life of the Christian life, seeping quietly without any fuss or noise and affecting the whole earth. It is the source of grace in church life. Our text shows how important the attitude of humility, which is the essence of the kingdom of God, is. Why is humility so valuable? First, humility is valuable because it eliminates the roots of hypocrisy that often sprout up. The events in verses 1-6 show how ignorant and dark hypocrisy is. When a man with flatulence was being treated, the Lord was criticized by the Pharisees and scribes for curing the disease on the Sabbath. Why did this arrogant and hypocritical attitude arise?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properly understand the law, the word of God. When we know

Christ, the center of the Bible, we come to know everything and everything precious that pertains to life and godliness, and our hearts are softened and humbled. However, because they were proud, they did not receive the Word right away and were unable to escape the bondage of hypocrisy. To make matters worse. Their false piety habits made them more proud. Although the Pharisees were known as pious people who were accustomed to tithing vegetables, fasting and praying, fastening the phylacteries, and blowing trumpets to give alms, this was only a superficial piety. As I misunderstood the words and repeated them, it became a habit and I became arrogant. If you look 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Ezekiel chapter 47, the work of revitalization, prosperity, and healing is a prophecy of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era when Christ came. Why do we live lives of struggle when infinite power springs up in Christ? Because pride blocks the flow of the Holy Spirit. In order to cut off the roots of hypocrisy that sprout like weeds, we must have a heart through which the rivers of the Holy Spirit flow by properly understanding and obeying the Word. Second, humility is a vessel that holds the honor given by God. The Lord uses humble vessels. Because blessings and honor can be stored on a vessel of humility. Verses 7-11 teach what to do when invited. Honor yourself by sitting low when invited. This is not a message for people, but for the honor given only by God. The honor given to Jacob only took effect after he learned humility through 130 difficult years. Humility was absolutely necessary to become a person who could inherit Abraham's blessings. This is also the way He guides us. The loneliness of immigrant life. Financial problems, health problems, husband and wife problems, and children's problems are God's hand to help us learn humility. Humility is always required, whether national or personal,

when you first believe or when you grow up. Only then can we keep God's blessing and honor. Third, humility allows us to enjoy eternal blessings. Verses 12-14 present a contrasting position to the previous one. He said that when inviting others, do not calculate your own benefit, but invite the crippled and beggars. It is said that at that time, blessings will come and we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We must value what we do before God in our church life. It is done secretly without anyone knowing.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your plants not producing seeds. H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h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We must receive eternal blessings by learning humble service like Joseph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a greater blessing in Christ than Joseph, but you cannot enjoy it if you are arrogant. Like the water flowing from the sanctuary, when you humble yourself and serve the Lord, you overcome hypocrisy and enjoy spiritual honor and blessings. Let us confess our pride and keep our hearts humble.

새사람을 입어라! (골3:12-17) 2003.6.15 (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초의 옷은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이것은 짐승이 죽은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사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옛 사람을 벗기시고 새사람을 입혔기 때문에(9-10)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어라" (12)는 것입니다. 옷을 입듯이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옷을 입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요소인 7가지 옷을 입으 라고 말하는데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관계에서 입어야하는 옷이 있습니다. (12)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하며, 그리스도 마음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하며(마5:3), 욕처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한다고 말합니다. 2) 이웃관계에서 입어야하는 옷이 있습니다. (13) 혐의가 있을 때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하며 주님 용서하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3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사랑의 띠를 띠어야 합니다.(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고 합니다. 띠가 몸이나 옷을 잘 묶어 힘을 받쳐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사랑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길 이기 때문입니다. (고전12:31)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감정적인 사랑보다 의 지적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자리에 나가는 가장 범위가 넓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안녕 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옷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쟁투와 시기의 옷, 음란과 호색의 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품인 하나 님 형상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합니다. (롬13: 14) 둘째. 어떻게 새 옷을 입을까요? 바울은 마음의 능력에서 이 옷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가르칩니다. 1) 그리스도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15) 마음을 지배하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어 지는 이 평강이 아니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문제 중에서도 평강을 얻는 것은 복음에 머물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16)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지배할 때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일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파스칼의 고백 대로 어린아이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라는 확신과 환희는 말씀이 지배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3)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17)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행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기도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일에 힘씀으로 새사람의 모습인 그리스도 형상, 사랑과 진실과 의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고후5:17) 실제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평강과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 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ut on a new person! (Colossians 3:12-17) 2003.6.15 Co., Ltd.

The first clothes God made were leather clothes. This thing that God personally made for Adam and Eve, who covered their shame with fig leaves,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death of the beast, so it can be said to be a shadow of the coming Christ. We who live after the coming of Christ are now in the most blessed position of living as those clothed with Christ. So, because the old self has already been taken off and the new self has been put on (9-10), we are told to “put on new clothes” (12). The idea is to live a life that resembles God, just like putting on clothes. First, what should I wear? Paul tells us to wear seven types of clothing, which are the basic elements of Christian life, and the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1) There are clothes that must be worn in a relationship with God. (12) It is said that we must wear the clothes of compassion and mercy like the good Samaritan, the clothes of humility and gentleness that is the heart of Christ (Matthew 5:3), and the clothes of long-suffering like Job. 2) There are clothes that must be worn in a neighborhood relationship. (13) When there is a charge, you must wear the garment of forgiveness. We must tolerate one another and forgive as the Lord forgives us. It tells us to forgive even seventy times seven. 3 And in church life, we must wear the bond of love. (14) “Above all these, add the bond of love.” Just as a belt ties the body or clothes well, supporting strength and maintaining balance, church life must be bound by love. Because love is the best way. (1 Corinthians 12:31) Therefore, workers who serve the church must be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others with the widest scope of

love, caring for their neighbors with intellectual love rather than emotional love. How many people wear strange clothes in church today? They are clothed in the garments of strife and envy, in the garments of lewdness and lasciviousness. We must become people who show the image of God, which is a spiritual character. I must wear the clothes of Christ that remind people who see me of God. (Romans 13: 14) Second. How do I wear new clothes? Paul teaches the following three things because this clothing comes from the power of the mind. 1) The peace of Christ rules the heart. (15) This peace that rules the heart is possessed by Christ and given by Christ. Without this peace given when we pray, we cannot work properly. Finding peace in the midst of problems is only possible if you stay in the gospel. 2) The words of Christ enrich the heart. (16) In Chapter 15 of the Gospel of John, it is said that abiding in the Lord means abiding in love and abiding in the Word. When the Word dominates, we put on a new self. Reading, meditating, memorizing, and applying the Bible are means of grace that lead us to become new people. As Pascal confessed, like a child,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Confidence and joy that God is my God arise when the Word dominates. 3)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Christ. (17) Whatever we do, we must walk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Christ, boasting not in ourselves but in the Lord. The Lord will surely accept and reward those who give alms and pray in his name in secret places. By working hard in this work, we are transformed into a new person, the image of Christ, a person of love, truth, and righteousness. Have you become a new person? (2 Corinthians 5:17) Have you actually put on the clothes of a new person? Pray to be clothed with Christ and to become a person governed by peace and the Word. This is

because this kind of thing cannot come out except through prayer. I pray that all saints who achieve this image will become saints.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눅13:31-35) 2003.6.11 (수)

국어사전에 의하면 "한탄하여 몰아 쉬는 한숨"을 탄식이라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의 표현으로서 아주 소망스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탄식이란 말을 하나님 사랑의 사역과 관련시켜 사용되었습니다. 성부의 탄식(창6:6-7) 성령의 탄식(약4:5. 롬8:16 만물의 탄식(8:22) 성도의 탄식(8:23)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 탄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다. 첫째, 주님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는가요?"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 들은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34)는 탄식은 어째서 일어난 것입니까? (1) 그들의 영적 무지를 보고서 탄식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이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셨습니다. 32절에 "...제 삼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완성됨을 가리키며(히2:10. 5:9. 7:28)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탄식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32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라는 말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여러 번 품으려 한 것은 먼저 주어진 구원의 사랑을 무참히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입니다. (34) 회개하고 싶고, 믿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인 그 집의 황폐함을 보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 여 버린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은 그 마지막이 심판이며 그 심판은 황폐함과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에 민감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역시 주님의 탄식을 배워야합니다. 주님의 탄식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은 나 자신을 돌아본 후에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의 탄식을 나의 탄식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사실상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도와주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좇는 자의 마음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탄식입니까? (1) 주님을 순간 순간 환영치 못 한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2)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너뜨린 장벽을 내가 다시 쌓지 말고 서로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3) 회개하여 추수할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두 준비하신 것을 받아드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요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합니다. 주님의 탄식소리를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Lament for Jerusalem (Luke 13:31-35) 2003.6.11 (Wed)

According to the Korean dictionary, "sighing in sorrow" is called lamentation, but in the Bible, it refers to a very hopeful action as an expression of sadness that comes from a heart of love and regret. Therefore, the word lament was used in relation to God's work of love. The sighing of the Father (Genesis 6:6-

7), the groaning of the Holy Spirit (James 4:5, Romans 8:16, the groaning of all things (8:22), and the sighing of the saints (8:23). What kind of sighing does the Lord speak of in the text? First, why did the Lord groan?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why did the sighing, “But you were not willing” (34) come about? (1) He saw their spiritual ignorance and lamented. After hearing the news that Herod was planning to kill them, the Lord testified to his death on the cross. Verse 32 In verse 33, “...and will be perfected on the third day” indicates that salvation is complete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brews 2:10, 5:9, 7:28), and in verse 33, “I have created today and tomorrow and the sand.” “I must go on my way, for no prophet dies outside of Jerusalem” was a prophecy of Christ's death and at the same time a lament. (2) He lamented when he saw the rejection of God's love. In verse 32, he spoke of demons. The words “I drove them out and healed them...” and the fact that the hen tried to brood the chicks several times show Israel's ungrateful attitude of ruthlessly rejecting the love of salvation given first. (34) I want to repent, I want to believe, When you are moved by the Holy Spirit to be humble, to be zealous, to love others, and to spread the gospel, give thanks immediately. (3) He lamented when he saw the desolation of the house, which was God's judgment. The words, “Behold, your house will be left desolate...” are a lamentation as he foresees the destruction of Judah. The end of spiritual ignorance and spiritual insensitivity is judgment, and that judgment is desolation and surprise. Second, I hope that there will be a sensitive response to the sound of the Lord's sighs. We, too, must learn the Lord's sighs and not only reflect on ourselves, but also hear the Lord's sighs as our own. You need

to change it to . In fact, the reason we cannot help or imitate the Lord's lament is because He said, "Weep not for me, but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This shows the heart of someone who takes up his cross and follows the Lord every day. What kind of lament is this specifically? (1) It is to look upon and lament over the sin of not being able to welcome the Lord moment by moment. (2) It is a lament over the lack of love for one's brothers. Rather than rebuilding the barriers that the Lord broke down, we must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us. (3) It is a sigh to see the world becoming white and ready for harvest. All you have to do is accept and believe in everything the Lord has prepared. For those who do not know this simple yet important thing, we must ask Him to send us workers to harvest. I hope that we will not only hear the Lord's lament and respond with repentance and faith, but also become alert servants who testify of the gospel with the Lord's heart.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눅13:22-31) 2003.6.4(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참 생명의 능력을 설명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참 생명을 얻고 누리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커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문을 열 어주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며 "좁은 문으로 늘 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23-25) 매사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구원문제에도 시작과 특히 그 마지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좁은 문이란 무엇이며,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좁은 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문이란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며 들어간 후에는 다른 문에 들어간 자와 또한 같은 문으로 안 들어간 자와도 갈라지는 구분, 전환점입니다. 요한복음 10:9절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했고 계시록 3:20절에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통 로를 문으로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에서의 문이란 인간의 지정의를 가리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에서 문이란 구원의 기회 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후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당과 지옥으로 직접 나누어지는 구분점입니다. 마태복음 7:13-14절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좁은 문, 험칙한 길'이라

하여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과 "길"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좁은 문"이라 했을까요? 주님을 좁은 문이라 부른다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그 구원의 목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1:12. 행4: 12)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 자신을 위탁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 그리스도께 계속 순종하는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노력과 수고의 진실을 드리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 먹고(성찬).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들은(전도)자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것은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3) 성령을 좇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함은 이방인의 회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대다수가 버림 당하는 모순된 일이 일어난 것은 성령을 좇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9-30)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경 읽기와 기도, 전도와 교제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나라에서 다 만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Luke 13:22-31) 2003.6.4 (Wed)

The Lord explained the power of true life in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and yeast. Today's text deals with how to obtain and enjoy this true life. He served as a prophe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followed God. To those who seek to open the door because of his miracles, he said, "I never knew you," and taught them, "Strive to keep going through the narrow gate." (23-25) Just as the beginning is important in everything, but the end is more important, the beginning and especially the end are very important in matters of salvation. I hope that by thinking about what the narrow gate taught by the Lord is and what it means to go through the narrow gate, we will all reach the place of true salvation without exception. first. What does narrow gate mean? A door is a starting point from which one can enter a certain place, and once entered, it is a dividing point and a turning point that separates those who entered through other doors and those who did not enter through the same door. In John 10:9, Christ is referred to as the door of the sheep, and in Revelation 3:20, the passage through which the Lord enters our hearts is compared to a door. The door in the words, "If anyone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he will eat with me, and I with him," refers to the specific definition of humans. In verse 25, "After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s the door, you stand outside and knock on the door and say, 'Lord, open to us,' and he will answer, 'I don't know where you are from.'" In this passage, the door means that the opportunity for salvation is always open. Rather, there is a judgmen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fter the judgment, it is a dividing point that directly divides the kingdom of the world into the kingdom of God, heaven and hell. In Matthew 7:13-14, the path we must take is called 'a narrow gate and a narrow road', explaining it as

the opposite of a wide gate and a wide road. In fact, “door” and “way” have the same meaning. But why did Jesus call himself a narrow gate? The reason we call the Lord the narrow gate is because our salvation begins only through Him, and we can only reach the goal of salvation by living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second. How do we get in through the narrow gate? What specifically does it mean to follow Christ, the “narrow gate”? 1) It is to believe in Christ. (John 1:12. Acts 4:12) I must entrust myself to the Lord with the same faith as Abraham, Isaac, Jacob, and the prophets. 2) Obey Christ. After believing, he told us to continue to strive to obey Christ. Giving the truth of effort and hard work is the life of a person who knows the truth. Eat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communion). Even those who heard the teachings (preachers) on the streets were abandoned because they had no obedient servants. True faith must be expressed in obedience. 3) Following the Holy Spirit. The fact that people from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participate in the banquet of the kingdom of God refers to the conversion of Gentiles. The reason why the contradictory situation of the majority of the Jews being abandoned occurred because they failed to follow the Holy Spirit. (29-30) There is a narrow gate and a wide gate before us. Fighting against sin until blood is shed. I pray that you will strive to read the Bible, pray, evangelize, and fellowship, and that you will choose the path that follows the wishes of the Holy Spirit and become believers who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nd that we will all meet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나라의 능력 (눅13:18-20) 2003.5.28 (수)

본문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됨 또한 작은 양의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봅시다. 첫째,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큰 놀라움을 동반할 완성의 사건인 주의 재림 외에 그의 탄생과 죽음 부활사건은 모두 은밀한 가운데서 시작한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나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알의 겨자씨가 밭에 심겨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 듯이, 작은 누룩 역시 천하고 불품없는 곰팡이지만 가루 서 말에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사60:22)는 약속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나라의 일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고 높은데서 찾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작은 것, 약한 것, 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태산을 바다에 던지고 뿔나무를 바다에 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나라의 일 일진데 작은 것을 커히 여기 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18:1-2)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하신 주님이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곳에 모인 오 천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았았습니까? 이를 위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보 다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에 더 가치를 두는
 물량주의(겔33:24)를 경계해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위해 깊이 도리어 작고 조용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의 뜻인 지를
 깊이 살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채전에 심겨진
 작은 겨자 씨가 후에 공중의 새들이 깃 드는 나무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교회를 보 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유일한 보화이기 때문입니 다. 또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찾아 거하는 안식처처럼 누구든지 찾아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피난처입니다. 이 안식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15:5)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 말에 갓 다 넣은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30 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량주의, 대량주의시대에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 의 영혼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야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의의 씨를 심어 축 복의 장마비를 맞보아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사역은 바로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가 장 적극적인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았은 았은뱅이에게 일어난 변화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10:12)

Th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Luke 13:18-20) 2003.5.28 (Wed)

In the text, a small mustard seed becomes a large tree, and a small amount of leaven makes the whole thing leaven, showing how great and absolute the power of God's kingdom is. Let's find out how the power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of God's kingdom appears in our lives. first. Starting small is a characteristic of the kingdom of God. Aside from the Lord's second coming, which is an event of completion that will be accompanied by great surprises, His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were all very small events that began in secret. These were all events that marked a milestone in history, but they started very small. Just as a very small mustard seed is planted in the field and becomes a large tree in which the birds of the air nest, and just as a small yeast is also a lowly and unsightly mold that is put into three measures of flour and makes the whole bulk rise, the beginning of the kingdom of God is small and quiet. no see. However, like the promise that "the small will make a thousand, and the weak will make a mighty nation" (Isaiah 60:22), the unimaginable work of God's kingdom is possible because i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zeal of God, not humans. As the people of God's kingdom, we should not try to find the work of God's kingdom in big and high places. fry. Even if you are weak or humble, stand right before God and think of Him. When you hold on to the Word with faith, you will experience the work of faith that throws Mount Tai into the sea and plants mulberry trees in the sea. Since this is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we must begin our work with a loving heart for the Lord who values small things. (Psalm 18:1-2) We must also move forward with a heart of obedience to his words. Even if it was something as small

as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didn't the Lord who was with us accept it and pray for it and feed all five thousand people gathered there, leaving behind 12 baskets? To this end, we must be wary of Moulinism (Ezekiel 33:24), which places more value on the large number of Israel than on the faith of one person, Abraham, like the Israel of Ezekiel's time. We, too, must stand before God and become servants of the Lord who, for the sake of the small tasks entrusted to us, deeply examine whether the small, quiet tasks entrusted to us are something that God started, something He is pleased with, and is His will, and accomplish with God's zeal. second. It is the kingdom of God that affects the whole. The small mustard seed planted in a vegetable garden later grows into a tree where birds of the air nest, a metaphor that shows the church revealed in the world.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 world's only treasure. Also, the kingdom of God is a true refuge where anyone can come and enjoy true rest, just like a shelter for birds. This resting place is Christ. (John 15:5) Therefore, true rest is found only in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just as a little leaven put into three measures of flour increases the whole, if you immediately understand and obey the word of God, you will increase it 30 times as much. The kingdom of God is one that bears fruit 60 or 100 times more. Saints who live in an age of materialism and massism, we must let the history of God's kingdom and life arise from our souls. We must sow seeds of righteousness with true repentance and faith and experience the rainy rain of blessings.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are the most active work that brings about this kind of history. Just as the change that occurred to the crippled man sitting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brought about the revival of the early church..."Sow for yourselves righteousness, and reap mercy; now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break up your fallow ground, until the LORD He will come and rain down righteousness on you" (Hosea 10:12)

감사로 무장한 가정 (골2:6-8) 2003.5.18 야외예배

테러, 전쟁, 바이러스의 전염속도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현 대인의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가정에 한 가정이 무너지던 것이 이제 는 65%를 웃도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이기는 길은 무엇일 까요? 국가 안전은 핵으로 무장하고, 침방울로 옮기는 사스는 마스크로 예방한다지만 벼 랑 끝에 들어선 것 같은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무장할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로 무장하 라"고 하십니다. 6-7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꽃이요 열매라는 것 입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앵무새처럼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닌 내게 부어진 은혜와 진 리를 발견한 후 드리는 깊은 감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부어진 은혜와 진 리를 발견할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이미 주신 모든 은혜를 알고 맛봄으로 감사의 세계가 열려야합니다. 감사"(thank)란 본래 생각하다(think)"는 말에서 나왔습니 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한 그의 안식 즉, 창조와 구원과 인식을 깊이 생각함 으로서 겸손을 배우고 감사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요1:12) 그것이 바로 영생이 고 축복이며 또한 요한일서 5:1316절에 보면 영생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받으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된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가진 자의 받은 모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고 하면 깊이 썩었고, 계속 썩어가고 있기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감사로 무장하

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께서 두로를 에덴동산의 부요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겔28:11-19) 세상 지혜도 얼마나 발달되었고
 교묘한지 에덴 문화의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잘못되었기에 결국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 습니다. 고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주님의 구주되심과 그의 용서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정죄를 하지 않으시며 용서하신 것처럼 거저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 인해
 감사가 충만해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로 무장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교훈의 반석 위에 서서
 감사의 집을 세워야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서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또한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쉬임 없이 뛰 는 심장
 박동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닌 중간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스토를 주로 받았으니까 다되었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위로로 인해
 사는 연의 사건을 일으키어 날 마다 지키며 살아야합니다. 이것이 교훈
 위에 굳게 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장하는 나무와
 지어지는 집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게 뿌리를 박은 나무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못 내려 그
 리스도인이면서도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사송배,
 율법주의, 금욕주의. 세상철학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유혹을 바울은
 복음으로 경계하며 산 돌이신 그리스 도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집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훈이 되어 야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광명의 천사처럼 달려와서 우리 양심을 어둡게 하여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하여 믿음을 파선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을 복음으로 경계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자가 되어 든든한 가정.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A family armed with gratitude (Colossians 2:6-8) 2003.5.18 Outdoor worship

Terrorism, war, and the speed of virus transmission are scary, but what scares us more is the rapid collapse of modern people's families. What used to be one in two families falling apart is now occurring at a rate exceeding 65%. What is the way to overcome this serious crisis? National security is ensured by arming oneself with nuclear weapons, and SARS, which is spread by droplets, is prevented with masks, but what can we arm our families, who seem to be on the edge of a precipice? Today's text says, "Arm yourself with gratitude." Verses 6-7 say, "A life overflowing with gratitude is the flower and fruit of the Christian life. Gratitude here is not something that is offered only with lips like a parrot, but rather a deep gratitude that is given after discovering the grace and truth that has been poured upon me. Then, How do I discover the grace and truth that has been poured out on me? First, by receiving Christ as Lord, I must open up a world of gratitude by knowing and tasting all the grace that has already been given. By thinking deeply about God and what God has done, that is, creation, salvation, and recognition, we learn humility and come into contact with the world of gratitude. So, Paul presupposes accepting Christ as Lord. If you receive it (John 1:12), that is eternal life and a blessing. Also, in 1 John 5:13-16, it says that those who have eternal life will receive answers if they ask for anything according to God's will, and if they pray for the

salvation of their neighbors, it will be answered. We have no choice but to be thankful for all the grace we have received from those who have eternal life. We, all of us, are evil sinners who are deeply corrupted and continue to rot in a place like this. It is impossible to live a life armed with gratitude. When we see that God compares Tyre to the riches of the Garden of Eden (Ezekiel 28:11-19), we can see how advanced and sophisticated the wisdom of the world is to create a replica of the Edenic culture. However, because the beginning was wrong, the end result is death and judgment. Therefore, our gratitude must always come from the Lord's Savior and His forgiving love. When the adulterous woman was crying with shame and fear, the Lord Himself condemned her. Second, when you arm yourself with gratitude because of the grace of forgiveness that God gives you without doing anything, a new world will open to you and you will build a house of gratitude. If receiving Christ as Lord is the beginning of building a healthy family, standing on the teachings of Christ is the gateway that must be passed and the only way. Because truth is a life with no in-between, neither this nor that, like a heartbeat that beats ceaselessly. You should not think that you are done because you mainly received gristo. Next, we must create the series of events of living by Christ, living for Christ, and living through the comfort of Christ, and keep them every day. This is standing firm on the teachings. So Paul explains this as a tree growing and a house being built. A tree rooted in Christ will bear the fruit of Christ. How many Christian families fall apart because their roots are wrong? Angel worship, legalism, asceticism. Paul warns against the temptation to take root in worldly philosophy with the gospel and tells us to build our house on Christ, the living ston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must be Christ and His teachings. How often does the

devil come rushing in like a roaring lion or an angel of light, darkening our conscience, turning us away from sound doctrine, and causing shipwreck of our faith? Dear saints, guard yourself with the gospel and become a wise person who builds your house on the rock of Christ's teachings and build a strong family. Let us live a life filled with gratitude.

안식일의 자유 (눅13:10-18) 2003.5.14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의 저변에 흐르는 그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알지 못하는 자는 억압과 억눌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는 안식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 두 가지를 발견 합니다. (1) 마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지내도록 한 여인을 억압하는 놈은 마귀였습니다. (11)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키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불신앙, 불순종, 정주의, 세속주의로 이끌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자는 이 마귀였습니다. 회개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마귀의 손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바른고백을 했지만 곧이어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듭났어도 육적 부패성을 따르면 곧이어 마키의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쳤지만 그 배후에는 마키가 밀까불듯이 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손아래서 벗어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십니까? (2) 그 다음은 외식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당장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14-17 절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이

노동이라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와 인과 신 곧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18년간 억눌린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로 알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에 매여 영혼을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율법의 자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첫 아들과 같이 어두움과 억압기운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식을 의도적으로 벗어 나야합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체의 정과 싸울 수 없어서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가 모든 방면에 가라지 뿌리 놓은 것처럼 외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늘 경계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13절에 보면 복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 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는 선언은 주님이 친히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안식을 주실 준비되어 계십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힘쓸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수하셨더니 즉시 퍼지고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이상한 자유가 생깁니다. 주님과 의 접촉(교제)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다가와 믿음의 접촉을 하고 소경을 두 번이나 안수하신 주님의 접촉처럼 교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계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Freedom of the Sabbath (Luke 13:10-18) 2003.5.14

One of the amazing gifts God gave humans after creating them was keeping the Sabbath. God allowed us to enjoy God's rest by working for six days and resting on the seventh day. God's rest means deeply enjoying His love that flows beneath His creation and redemption. Only those who know this love can enjoy true freedom, and those who do not know cannot escape oppression and suppression. Let's take a look at what prevents us from enjoying true freedom and how we can enjoy this freedom. First, we discover two obstacles that prevent us from enjoying the freedom and rest of the Sabbath. (1) It prevents Maki from enjoying rest. It was the devil who oppressed the woman who forced her to spend 18 years curled up. (11) Because the Marker, the ruler of the power of the air, has a personality, he leads us to disbelief, disobedience, sedentism, and secularism, preventing us from enjoying true freedom. It was this devil who gave Judas Iscariot the idea to betray Jesus. Even though 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repent, he did not receive it properly and fell into the hands of the devil. Also, Peter made a correct confession, but was soon told that he was Satan. Even if you are born again, if you follow your fleshly depravity, you can soon be oppressed by the marker. Peter shouted loudly, but behind him, the devil was sifting wheat, so he was

able to recover through the Lord's prayer. Do you live in true freedom, free from the hand of the devil? (2) Next, eating out prevents us from enjoying rest. There are other people who cannot enjoy rest in the text, and these are legalists led by the synagogue leader. In verses 14-17, they claimed that healing on the Sabbath was work and therefore a violation of God's commandments. That is self-contradiction and not knowing the true spirit of the law and only holding on to its shell. This is because the law is summarized in righteousness, mercy, and God, that is, love.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the purpose of keeping the Sabbath was to spiritually liberate the person who had been oppressed for 18 years. This is because if you know the law correctly, you will become a truly free person, and it will never oppress your soul by being tied down to some form. They did not know the true freedom of the law. Like the first son at home, he became a person living in darkness and oppression. Today we need to intentionally get away from eating out. This is because legalism ultimately prevents us from meeting the Lord, from being unable to fight against the emotions of the flesh, and from being unable to escape the darkness. Second, how can we enjoy freedom? The devil, who oppresses us, works in hypocrisy as if he has sown weeds in every direction, so we cannot enjoy true freedom unless we are always on guard. What should we do to enjoy true freedom? We must return to the gospel. In verses 12-13, we see the hand of the Lord leading us to the gospel. The declaration,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was a declaration of freedom because the Lord Himself took charge of the problem. The Lord's coming is said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 poor, freedom to the captives, sight to the blind, and freedom to the oppressed. In our Lord, He is ready to organize everything and give us rest. All you have to do is come. And rest is

given when we strive for fellowship with the Lord. When he laid his hands on it, it immediately spread and gave glory to God. When the Lord touches him, he has a strange freedom. Contact (communion) with the Lord allows us to enjoy true freedom. True freedom comes to us when we focus on fellowship, like the woman with the issue of blood who approached us with faith and the Lord who twice laid hands on the blind man. Please return to the Lord. Because there is true freedom.

회개의 경종 (국15:1-9) 2003.4.7 (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본문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심 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전해 들은 주님께서는 "너 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같이 망하리라"고 하였고, 실로암 땅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참사는 다른 사람의 회개보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911사태로 수 천명이 죽고,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는 사건, 터키의 지진과 대구 지하철 참사들을 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셨는가요? "너희도 회개 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서 진정한 회개에 관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사건을 허락하심은 진정한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한 살해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잔인한 행 실과 불경스러운 죄를 생각하고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나쁜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죽은 사람들의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죽은 사람의 부모 관점에서 부모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운 명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는 모두 다 정확한 답변일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의 회개와 관련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윗의 경우, 요셉의 경우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사건을 볼 때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싸이렌 소리로 들어야합니다. 거기서 "당장 회개하라"는 긴박한 경종을 들을 줄 알아야만 바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회개하기를 힘써야합니다. 느헤미아처럼 자기 죄, 조상의 죄를 책임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그분의 뜻에 커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작은 죄를 중요하게 다루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모두 잘한 것이 있었으나 주님은 한가지 죄를 책망하심으로 작은 죄부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과 교제 회복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칼빈의 강요에서 회심은 일 생에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면 회개는 무덤에 갈 때까지 평생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회개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동반해야하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1) 지적으로 알고 2) 정적으로 느끼고 3)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받아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합니다. 미스바 회개처럼, 니느웨 백성의 회개처럼 1 초라도 빨리 회개해야하는 긴박성으로 임해야합니다. 골로새서 3:16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상적인 삶을 말씀에 풍성한 삶 이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요일1:7, 9) 교제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미루기를 좋아하나 성경은 지금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독이 다 퍼지기 전에 즉각 회개하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을 나의 죄를

회개(믿음)하게 하려고 주신 것임을 알고 깊이 회개하여 주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of repentance (Kuk 15:1-9) 2003.4.7 (Wednesday)

The text we are going to consider today shows how great the Lord's interest is in true repentance. After hearing about Pilate killing the Galileans, the Lord said, "If you do not repent, you too will perish," and pointed out that the disaster in which the Tower of Siloam collapsed and killed 18 people was an incident that called for our repentance rather than the repentance of others. You did it. Why did you show us today the deaths of thousands of people in 9/11, the death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war with Iraq, the earthquake in Turkey, and the Daegu subway disaster? The message is,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perish." We can learn two things about true repentance from this text. first. Allowing such an incident focuses on true repentance. When faced with a murder case, the causes can be explained in many ways. Think of Pilate's cruel conduct and blasphemous sins, and ask, "How cruel!" How bad is it?" Second, it can be said to be a result of the sins committed by the dead people. Third, it can be said to be due to the sins of par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ad person's parents. Fourth, it can be attributed to fate. Above. All four answers cannot be correct. What the Lord is teaching us is that all of these events must be related to our repentance. In the case of David, we must focus on repentance to solve the problem. This is what happened. Today, whenever we see events around us, we must hear the siren call, "Repent of your sins." There, you must be able to hear the urgent warning, "Repent immediately," in order to respond correctly. Therefore, the

church must always strive to repent. Like Nehemiah, w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sins and the sins of our ancestors and repent. This means to stand honestly before God and give heed to His will. The church must treat small sins seriously and be afraid of them. Although the seven churches in Revelation all did something good, the Lord rebuked them for one sin and told them to repent from small sins first. I hope you stand before God, acknowledge your sins, and turn from them. Second, restoration of fellowship with the Lord is true repentance. Calvin's Institutes say that while conversion is something that happens once in a lifetime, repentance happens throughout one's life until one goes to the grave. In that sense, a truly converted person must live in repentance every day. Living by faith every day means living in repentance every day. Because repentance and fait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rue faith must be accompanied by true repentance, and true repentance always presupposes true faith. So how do we repent? 1) Know it intellectually, 2) Feel it emotionally, and 3) Make a willful decision. There must be an action to turn around. We must believe in, accept, thank, and praise Christ's merits. Like the repentance of Mizpah and the repentance of the people of Nineveh, we must act with a sense of urgency to repent as quickly as even a second. In Colossians 3:16, Paul paints a picture of the most normal life of a spiritual Christian as a life rich in the Word. This is the life of repentance and the life of Emmanuel in fellowship with the Lord. (1 John 1:7, 9) If there is no fellowship, there is no repentance. We like to put off repentance, but the Bible commands us to repent now. I hope you repent immediately before the poison spreads today. I hope that you will realize that all the events you are currently experiencing were given to you to repent (belief) of your sins, and that you will deeply repent and restore the grace of forgiveness given by the Lord.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눅12:49-59) 2003.4.28(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불 던지는 행위로
비유하셨습니다. (49) 내 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불 붙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과 그 소원대로 이 불이
온 땅에 붙여지는 것을 볼 때.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불을 성령", "심판", "복음"., "적대성" 등으로
말 하지만, 저는 이 불 던지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왜 불을
던지러 오셨는가?"라는 말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려고 십자가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뺀 사람은 그 자신이 혼란 속에 거합니 다.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칼빈이 말한대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혼돈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제련소를 통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받아드릴 때 거기에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주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 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본문은 죄에 대하여 두려운 진노의 모습 즉, 공의 로운 심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의가 없이는 조금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선언은 무슨 뜻입니까? 불이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불같은 성령은 의가 드러내는 심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불을 던지는 행위는 십자가 지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자신이 받을 불세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불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 천 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효능은 "한 알의 밀의 죽음'(요12: 13)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선악의 바른 분별력을 갖습니다. 불이
 붙은 개인에 게 분쟁이 일어나며 "자아나 하나님이나?","육이나
 영이나?"를 구분하는 영안이 뜨여 집니다. 불이 붙은 가정에는 아비와
 아들, 시어미와 며느리, 어미와 딸이 거듭남에서 오는 어두움과 빛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할 때만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뒤편에 태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여러분 되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둘째,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려고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구원 하는 근거만이 아니고 화평의
 근거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 "급히 사회하라"는 비 유에서 화목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57-59) (1) 율법주의로 치 당게되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이고 (3) 값싼 은혜주의로 치 당으면 방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질 때만이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십자가 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
 탐욕, 자기주의는 십자가를 팽개친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최소한 십자가 중심한 것을 배운 자가 아니면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화목을 이루라고 부르셨고 십자가 짐이
 아니면 결코 이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는 각자가

십자가로 돌아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참 구원의 자리에 서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삶을 살 아가야 할 것입니다.

The Lord came to throw fire (Luke 12:49-59) 2003.4.28 (Wed)

In today's text, the Lord compares carrying the cross to throwing fire. (49) When we see the Lord's wish for the whole world to be set on fire according to His words, "I have come to throw fire on the earth," and when we see this fire being set on fire throughout the earth according to His wish, we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Some people think that it is inevitable, "the Holy Spirit," "judgment," and "gospel." ", "hostility", etc., but since I see this fire-throwing as a "crucifixion," I think the question "Why did He come to throw fire?" is a question of "Why did He bear the cross?" First, correct. It is said that one must take up the cross to gain discernment. A person who has abandoned the cross lives in confusion and therefore does not know the true value of heaven. It is like a "fire that confuses the earth." Like pure gold that has had its impurities removed through a refinery, when we accept the event of the cross and the gospel, a new event takes place there. Therefore, we must bear the cross every day. We must do well. As we know, the cross of the Lord has two aspects: salvation and judgment. Among these, verse 49 shows the fearful wrath against sin, that is, the image of righteous judgment. What does the declaration that God came to throw the fire to the ground mean that the fiery Holy Spirit that came at Pentecost was to bring about the judgment of the Lord? Jesus said that it was the baptism of fire that he would receive. God's righteousness was revealed to all the world. Therefore, the efficacy of the cross is like the death of a grain of wheat (John 12:13). Death brought forth much fruit. When we believe in His merits, we become righteous and

fellowship with God becomes possible. Therefore, those who receive this fire have the right discernment between good and evil. Disputes arise in individuals who are on fire, and their spiritual eyes open to distinguish between “Self or God?” and “Flesh or Spirit?” This is because in a family on fire, father and s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mother and daughter appear with differences in darkness and light that come from rebirth. So, only when we center on the cross can we understand the problem with correct discernment. I hope that you, all of you who bear the cross that is yours with gratitude, will live with sound discernment. Second, we must bear the cross to achieve true reconciliation. The cross of the Lord is not only the basis of salvation, but also the basis of peace. What does the parable about “making haste” on the way to court say about reconciliation? (57-59) (1) If we fall into legalism, we will stray from the place of salvation, and (3) if we fall into cheap grace, If you touch it, it means self-indulgence. They must all return to the cross. This is because reconciliation can be achieved only by bearing the cross. So, if we cannot achieve true reconciliation, we cannot stand in the position of bearing the cross. So pride, greed, and self-centeredness are evidence of abandoning the cross. Unless a church official has at least learned to center on the cross, he or she cannot fulfill that position. Because the church has been called to achieve reconciliation, and this can never be achieved without bearing the cross. In our church, each person must return to the cross, have correct discernment, achieve true peace, stand in the position of true salvation, and live a life that preserves eternal life.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중 (눅12:35-48) 2003.4.23.(수)

그리스도인은 영적 긴장감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됨으로서 인자의 때를 준비해 야합니다. 본문 35-40절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중"의 비유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이며 41-48절에는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라크 전쟁에 관해 가지각색의 평가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모슬렘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볼 때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40) 주님 재림을 잘 맞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째, 영적 긴장을 가져야합니다. 긴장(tension), 스트레스(stress)는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이 못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처럼 영적 긴장이란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 어 근신하라"는 말을 수 없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딤후1:7)이라고 한 것처럼 재림을 앞 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탐욕주의, 한탕주의, 찰나주의와 같은 방종된 자세가 아닌, 성령의 영적 긴장을 가짐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과 관련시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긴장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1) 그 날을 모르게 하심으로서 긴장을 갖게 하십니다. 재림날짜를 알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현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날짜를 모르는 것이 탐욕이나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2) 그 날이 갑자기 오게 함으로서 긴장을 갖게하십니다. 도적이 예고 없이 침입하듯이 재림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홍수나 소돔 고모라 멸망의 긴급한 경고처럼 재림은 홀연히 오게하는 예고로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십시오. (3) 그러나 그 날의 징조가 따릅니다. 고통하는 때이며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때라고 합니다. (딤후3:1-5) 불법의 사람(인본주의)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살후 3:3)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육신적 긴장을 떨어버리고 육적 안일을 경계하며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긴장으로 충만하여 인자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청지기 의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비유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41) 청지기 의식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나? (42) 청지기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종으로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관리인입니다. 창1:27-28을 보면 본래 인생은 영원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짐으로 왕 노릇하는 처세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두 가지를 지녀야 합니다. (1)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수학공식이라면 지혜는 그 공식을 응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 뿐 아니라 적절한 때에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진실이 필요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맡겼기에 일하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게으름이 생기고 방탕하고 포박한 것을 보면 그에게는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45-48) 여러분은 모든 방면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재능, 몸, 시간, 물질, 건강이나 교회직분이나 가정의 삶에 청지기 의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긴장감과 종 의식은 우리로 "경건한

충성"을 하게 합니다. 재림의 날에 바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The servant preparing for the time of the Son of Man (Luke 12:35-48)
2003.4.23 (Wed)

Christians must prepare for the time of the Son of Man by being good stewards with spiritual tension. Verses 35-40 of the text show that we must become believers preparing for the Second Coming through the parable of “a watchful servant waiting for his master,” and verses 41-48 teach us to “be wise and truthful stewards.” About the Iraq War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but above all, when we see that the door to the gospel in the Muslim world has been opened, we feel that the time of the Son of Man is near. (40) What should we do to welcome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First, we must have spiritual tension. Just as tension and stress are not good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re still necessary to some extent, spiritual tension is an essential vitality for Christians ahead of the Second Coming, so the Lord repeatedly tells us to “stay awake and be sober.” As God has given us, it is not a spirit of fear, but a spirit of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2 Tim. 1:7), Christians who are waiting for the Second Coming should not be greedy or greedy. Rather than a self-indulgent attitude like momentaryism, we wait with the spiritual tension of the Holy Spirit. So, the Lord helps us learn tension in the following three ways in relation to the Second Coming: (1) By making us not know the day. Knowing the date of the Second Coming makes it easy for people to become lazy and ignore reality. (2) Just as a thief invades without warning, the day comes suddenly and makes us not think about it. He said that

it will come at an unexpected time. Like the flood or the urgent warning of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the Second Coming is a warning that it will come suddenly and will always keep us on our guard. (3) However, it will be a time of suffering, coldness of love, and pride and pleasure. It is said that it is time to love more than to love the Lord (2 Timothy 3:1-5). The people of lawlessness (humanism) rise up and oppose Christ (2 Thessalonians 3:3). We must abandon fleshly complacency and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Son of Man by being filled with the spiritual tension given only by the Holy Spirit. Second, the sense of stewardship must be full. After hearing Peter's question about the parable of the servant (41), Jesus spoke of the importance of stewardship. "Who is a wise and faithful steward who will give his master over the servants of his house to give them food at the right time? (42) A steward is not the owner. A steward is a servant who is in charge of the house and gives them food at the right time. According to Genesis 1:27-28, people were originally called to be eternal stewards, but due to the fall, they ignored God's lordship and developed the skill of ruling as kings. (1) Wisdom is necessary. Just as wisdom is solving problems by applying the formula, a manager must not only know the master's will but also use wisdom to solve problems at the appropriate time. (2) The truth is necessary. If you see that an evil manager is lazy, debauched, and tyrannical, it is because he does not have the truth. (45-48) You must be a good steward in all areas, whether it be your personal talents, your body, your time, your health, your church duties, or your family life, and you must serve the Lord with the spiritual tension and servanthood that the Holy Spirit gives you. I pray that the grace of standing upright will be with you on the day of the Second Coming.

유월절의 완성 (출12:1-13) 2003.4.13. (7)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죽음 당한 어린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12:12)란 약속대로 이 절기는 주님의 죽음 심으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이 절기에는 두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잡하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설명하셨습니다.(막14:22-26) 그는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해 어린양을 준비하지 않으셨고 그 자신이 어린양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일찍이 세례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바로 주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담당하심으로서 죄를 속하셨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게 했습니다. 죄와 죄책과 형벌과 사망, 모두가 영 단번의 죽음 심으로 제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불렀습니다.(벧전1:29) 이것을 믿고 주께 모든 문제를 아뢰시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피가 발린 문설주와 인방 안에 있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며 급히 탈출하려는 자세로 먹게 했습니다. 특히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먹게 하는 이 날을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피 흘린 양고기를 양식으로 삼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유월절의 포도즙 을 "언약의 피"(막14:24)라고 한 것은 죽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다는 것입니다.(요6:53-55)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서 그의 죽음과 깊이 연합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 성찬은 하나님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로 완성 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궁무진한 은혜이고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길뿐 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죽음의 공로로 나가야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리스도 죽음의 공로로 나가야합니다. 봉사할 때도 그리스도 죽음의 공로로 해야합니다. 그리스도 죽음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의 죽으심은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그릇 위에 주님의 은혜 가 주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Completion of Passover (Exodus 12:1-13) 2003.4.13. (7)

Israel's Juvenile Day is the same as Independence Day. This is because Israel, who had no choice but to die when judging Egypt, was revived by the blood of the slain lamb. According to the promise,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Exodus 12:12), this feast was completed with the death of the Lord. This season, completed through Christ, has meaning from two symbols. Let's find out what they mean. First, it was completed through the death of Christ. The Passover lamb had to be killed, and its blood had to be applied to the

doorposts and lintels. Only then could the angel of judgment see the blood and pass over. The Lord himself explained this on the night before the Passover (Mark 14:22-26). He did not prepare a lamb to eat the Passover, but claimed to be the lamb himself. As John the Baptist once sai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is the Lord Himself. He Himself took upon us, atoning for our sins and passing through the judgment of God that would come upon sinners. Sin, guilt, punishment, and death have all been removed by death once and for all. That is why Peter called the blood of Christ the precious blood. (1 Peter 1:29) If you believe this and tell the Lord all your problems, you can receive amazing answers. Because he died for this. Second, he allowed us to enjoy the death of Christ by faith. What did Israel do when the doorposts and lintels were covered in blood? They were made to eat lamb,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as if they were trying to escape. In particular, this day of eating unleavened bread for a week is calle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He used the bloody lamb as food and used its strength to live. When our Lord referred to the grape juice of the last Passover as “the blood of the covenant” (Mark 14:24), he was emphasizing death. This merely symbolizes the death of Christ. When you believe in the death of Jesus, you can enjoy the abundant life of eternal life. (John 6:53-55) This is the Holy Communion. By participating in this Eucharist until the day Christ comes, we are deeply united with His death and can enjoy the grace of heaven. In the future, this sacrament will be completed as an eternal feast in the kingdom of God. What is promised to Christians today is infinite grace and abundant blessings. The only way to receive and enjoy this as mine is to believe in the death of Christ. Even when we pray, we must do so through the merits of Christ’s death. Even when praising, Christ must also go out for the merits of

his death. When we serve, we must do so through the merits of Christ's death. Rely on Christ's death and take away all your problems. The Lord's death has sufficient effect. Just as the grace of the Lord was given to us on a humble vessel, we hope you will receive the death of the cross with gratitude and enjoy abundant life.

천국백성의 생활관(눅12:22-34) 2003.4.9. (수)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인 것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인해 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백성의 생활관입니다. 그러면 천국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치 않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38절)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염려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문제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기르시는 간섭과 보호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그들을 인도하심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믿는 것을 감사(빌4:6-7)와 기도(마7:7-9)로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그 백성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염려치 않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라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31)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것이 천국백성의 나갈 길입니다.(살전5:16-17) 왜냐하면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32) 또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둬서 그 나라를 구합니다.(33-34)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 부자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여 주님을 떠났고, 한 사두개인 서기관은 이론과 지식만 빠듯 했지, 실제로 주님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모두 드리지 못했으며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는 재물로서 자기 영혼을 먹일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졌음을 보입니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개인적인 의(칭의)을 얻고 선택한 목적대로 의를 행하는 가족이 되며 의로 충만한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무한한 보장의 삶을 누립니다. 사명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부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Lifestyle of the People of Heaven (Luke 12:22-34) 2003.4.9. (number)

Christians are the people of heaven because they are people who focus on Christ, who live for Christ, the King of Heaven, and who live for Christ. So verse 31 says you should live only for the kingdom of God. This is the lifestyle of the people of heaven. So how should the people of heaven live? First, you shouldn't worry. A life without worries is a life of faith. (Verse 38) There are two concerns. One is the worry that leads to life, and the other is the worry that leads to death. Christians do not have to worry about death. The reason is that food, clothing, and shelter issues were guaranteed. If the Lord is in charge of the intervention and protection of feeding crows and raising lilies, isn't it natural for Him to guide those who are more precious than that? Therefore, we must express our faith in the Lord through gratitude (Philippians 4:6-7) and prayer (Matthew 7:7-9). Please show evidence of that people through your life of faith. Second, we must seek the kingdom of God. If not worrying is a passive attitude, saving the country is a positive attitude. (31) There is no middle ground. Seeking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of the kingdom of God is the way for the people of heaven. (1 Thessalonians

5:16-17) Because God promised to give us the kingdom. (32) We als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33-34) It is our job to lay up our treasures in heaven. A rich young man left the Lord because he could not do it because he had a lot of money, and a Sadducee scribe had only limited theories and knowledge, but could not actually give his body, mind, will, and life to the Lord, and a rich man with abundant produce It seems that he has fallen into the great illusion that he can feed his soul with wealth. Seeking the righteousness of that kingdom is seeking the kingdom of God. I hope that, like Abraham, you will gain personal righteousness (justification), become a family that practices righteousness according to your chosen purpose, and build a nation filled with righteousness. Only those who live for that country enjoy the life of infinite security promised to us. I pray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missio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filled with truth, and live with the riches of the kingdom of God.

교회의 머리 (골1:15-18) 2003.3.30 (주)

예수님은 모든 옷을 걸 수 잇는 옷걸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심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만물의 근본, 죽은 자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만물의 으뜸이라고 합니다.(18) 이 말은 인류가 수 천년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해답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가운데 자라 가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중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재자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 누가 만들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출3:14)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요1:1-2) 그가 이 세상 있기 전에 계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친히 만드신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회의(Council)를 이룬 한 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거나 바벨탑을 만들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중 제 2위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를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하신 말처럼 그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물을 만 드실 때 첫째날 빛, 둘째날 궁창, 셋째날 육지와 바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날 어조류, 여섯째날 동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심은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성부, 성령, 성자께서 창조하심과 재 창조(구원)하심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이 분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적 역사로 교회를 인도하심을 알고 그 안에 거함으로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째, 그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재자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 자이실 뿐 아니라 섭리주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란 말입니다. 참새의 거래나 머리의 회고 검게 하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눅12) 다윗과 골리앗의 승패를 주님이 좌우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의와 진리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을 가진 설계를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만을 기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신실히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되고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Head of the Church (Colossians 1:15-18) 2003.3.30 (Note)

Jesus is like a hanger on which all clothes can be hung. Apostle Paul is the center of the church. Christ, the source of life, is said to be the head of the

church,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supremacy of all things. (18) These words express in one word the answer that mankind has been searching for for thousands of years. no see. So, Paul was prepared to sacrifice everything if it meant growing in the knowledge of Jesus. Because my hope, my salvation, my joy, my worth, my power, everything I have, is Jesus alone. What kind of person was the Jesus he saw? First, he is the image of God. In verse 15, Paul calls Christ the pre-existent. He is the One who exists and was not created by anyone. That is why He is called “Jehovah” (Exodus 3:14). It is amazing that He was the Word who was in the beginning (John 1:1-2). This is because He is the Absolute One who created all time and space. At the same time, he says that he is one of the people who formed the Council of God. Even when creating humans in God's image or building the Tower of Babel, the Lord still used the word "us." Among them, the Lord, the second person, came to this earth. In that sense, Paul called Christ “the image of God.” This is because he is the one who showed us the invisible Father and through him showed God's love and good and righteousness. As he said to Philip, he who saw him saw the Father. If people today want to meet God, they must go to Christ. Because he alone is the image of God. Second, He is the Creator. Next, Paul refers to Christ as the Creator of all things. It is said that without him all things were not accomplished. When he created all things, he created light on the first day, the firmament on the second day, the land and sea on the third day,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fourth day, birds and birds on the fifth day, and animals, plants and people on the sixth day. He created them all with words. That word is Christ. As it turns out, he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creation and re-creation (salvation) of the Father, the Holy Spirit, and the Son. Just as creation occurred when water was changed into

wine when we obeyed at the wedding in Cana, we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creation when we know this person. We hope that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will lead the church through creative history and live a creative life by remaining within it. Third, He is the Lord of Providence. Christ is the image of God as a pre-existence, and since he is not only the Creator but also the Provident Lord, he is the one who can become the head of the Church. He is the one who personally rules this world. He is the one who intervenes even in the trading of sparrows and the whitening and blackening of hair (Luke 12). Just as the Lord determined the victory and defeat of David and Goliath, he establishes righteousness and truth in all things. The fact that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means that he rules over the church himself. Therefore, design someth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Christ. Love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expect only what comes from him. When we know that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is our head and faithfully receive His guidance, we can come to know God and accomplish the work of creation.

탐심을 물리쳐라 (눅12:13-21) 2003.3.26 (수)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자기 형제와 유업 나눌 재판장이 되어달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시킨 그를 책망하시면서 자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거나,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을 구하거나,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첫째, 탐심이란 "지독한 욕심"입니다. 성경은 이 탐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는 이 욕심은 탐욕입니다. 먼저 이것은 외식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외식과 탐욕을 같이 누룩이라 했습니다. 이 외식은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거짓을 만들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다음, 탐욕은 자기주의에서 나옵니다. 이기주의, 자기주의는 결국 탐욕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자는 "내가"라는 말을 6차례나 합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2:6에는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자기 욕망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은 바로 그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몰록), 태양신이 이 부자의 인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사회는 탐심으로 채워졌다는 말이며 모든 악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바벨론

사꾼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부수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요? 첫째, 영혼위주의 삶이어야 합니다. 육위주로 살면 당연히 탐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혼위주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삶이 주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탐심을 이깁니다. 부자의 생각은 의지가 비뚤어졌으니까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진 생각입니다. 자기는 부요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롬12:1-2절처럼 생각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중심한 생각을 해야합니다. 탐심이란 우리 안에 있는 복병과 같습니다. 탐심을 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안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위주의 삶을 살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생각, 이론, 철학, 고정 관념 등 모두를 성경의 빛아래 점점 받아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Resist greed (Luke 12:13-21) 2003.3.26 (Wed)

Someone asked the Lord to be a judge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s brother. He rebuked him for distorting the purpose of his coming and said that he had come as the Lord to save souls. It is natural to seek money when you don't have money, a job when you don't have a job, or health when you don't have health, but only by focusing on the gospel can you become spiritual, not physical, and please God. It's possible. First, greed is "terrible greed." The

Bible takes this issue of greed seriously.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James 1:15). This desire is greed. First of all, this comes from eating out. The Lord called hypocrisy and greed together leaven. This is because this eating out comes from greed. Gehazi's greed created lies, deceived people, and obscured the glory of God. Because he was not before God, he committed such a thing because he was the standard and his own desires were the standard. How foolish it is to base this on a corrupt human mind. Next, greed comes from egoism. Egoism and self-centeredness ultimately lead to greed. This rich man says "I" six times. "I," not God, ruled him. Lastly, covetousness is idolatry. Colossians 2:6 calls idolatry covetousness. If you know it, an idol is the outward expression of one's desires. All the idols of Israel came from their greed. Baal, Asherah, Chemosh, Milcom (Moloch), and the sun god are all present in this rich man's life. So, our society is filled with idols and greed, and all evil arises from there. The Babylonian messengers bought and sold human souls. I hope that you will destroy the idols within you and be governed by the Holy Spirit and receive the refinement of the Word. Second, what is the way to overcome greed? First, it must be a soul-centered life. If you live primarily for meat, you will naturally be unable to escape greed. A soul-centered life is a life centered on a proper relationship with God. It is knowing what God's will is and obeying it. The next time a change in thinking occurs, you overcome greed. Because the rich man's will is crooked, his thoughts and plans turn away from God. He may say he was rich, but he was poor toward God. The way out of this is through a change in thinking, as in Romans 12:1-2. To do this, we must think centered on the Bible. Greed is like an ambush within us. If we cannot get rid of greed, we will face huge

problems. Therefore, we must live a soul-centered life and bring about a change in our thinking. Please examine all your thoughts, theories, philosophies, stereotypes, etc. under the light of the Bible so that you can move forward into the position the Lord wants you to be.

성령이 주시는 담력 (눅12:1-12) 2003.3.19

본문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할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고 문제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운데 성령님이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심을 알 때 우리는 담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까? 첫째, 숨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1-3절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외식의 위험성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적은 이스트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외식, 탐욕, 원망, 불평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외식한 가인은 안색이 변했으며 탐심의 노예가 된 아간이나 게하시도 두려워 숨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합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앞에 정직히 설 때 담력을 갖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2-3)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망한 원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받은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떠나 자기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담력을 갖습니다. 둘째, 섭리 중에
일하십니다. 4·7절에서 주님은 섭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섭리란
계획하신 것을 간섭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심을 가리킵니다. 므낫세 당시,
유다 왕국은 섭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브라함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 십니다.(4·5)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6·7)
참새 5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유동표적을 맞추는 적절한 타임잉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며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째, 위기
중에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숨긴 것을 드러내시고, 인간 생사문제와
영혼의 현재와 장래문제,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성령님은
특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입니다. 핍박당할 때 할 말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수들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증거했습니다. 전도할
때 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적절한 말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
다.(고전10:13)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담력이 있습니다.

The text reveals the reason why we can confidently approach God and have courage in the face of problems when we face a crisis, an embarrassing situation, or feel powerless.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is always working among us. We have courage when we know that the Father plans salvation, the Son accomplishes salvation, and the Holy Spirit begins a good work in us and carries it through to the end. So how does the Holy Spirit give us courage? First, he reveals what is hidden. Verses 1-3 talk about the dangers of hypocrisy, which is a hindrance to the kingdom of God, and warn,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He compared eating out to “leaven.” Just as a little yeast causes the flour to rise, God foresaw that eating out, greed, resentment, and complaints would affect the whole. Cain's countenance changed as he was a hypocrite, and Achan and Gehazi, who had become slaves to greed, hid in fear. This is because lying does not make you bold before God or people. So, because Paul had no shame in his conscience, he was bold before God and before people. So, to escape hypocrisy, you must stand right before God. We gain courage when we stand honestly before “God who reveals hidden things.”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and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known.” (2-3) The reason why the kings of Judah and the kings of Israel fell and were rebuked by the Pharisees was because they failed to live a life before God. This is because they left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followed their own desires. We have courage when we are guided by the Holy Spirit, who reveals everything. Second, He works in providence. In verses 4-7, the Lord taught providence. He refers to providence as interfering with and executing what was planned. At the time of Manasseh, the kingdom of Judah did not know the providential God, so it served all kinds of idols despite the

promise of blessing to Abraham. The one to truly fear is God. (4-5) This is because he destroys both the body and the soul. It is God who truly knows everything in detail. (6-7) It is God who intervenes even when five sparrows are sold for two pennies or even when one is given as a bonus, and even counts the hairs on one's head, and knows the appropriate way to hit all the moving targets. The one who even interferes with timing is God and the Holy Spirit. When you know this, you can have courage. Third, even in times of crisis, He Himself speaks. The Holy Spirit, who reveals what is hidden and intervenes in matters of life and death,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soul, and even the smallest things, speaks personally, especially when we suff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A poet before people is a poet before God. He gives us what to say when we are persecuted. Peter and John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estified before their enemies. I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allows us to come out with the right words even when we are not well prepared when evangelizing. (1 Corinthians 10:13) Therefore, please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hen you face a crisis. Those who walk with the Lord can walk in the light, not in the darkness. People like this have courage toward God

“화 있을 찌저!” (눅11:33-54) 2003.3.12

요한삼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교만하여 망령된 꾀름(gossip)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쫓아내었지만 데베드리오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냐 진리이냐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임을 보입니다. 외식이란 무엇인가요? 외식은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혈며, 자신과 이웃을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본문은 외식의 여섯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1) 속이 어 두워집니다.(33-36) 어둡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이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스스로 망했습니다. 외식에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외향적으로 치우칩니다.(37-41)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2절에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진리의 경중에 무지하여 외식자 된 것입니다. 3) 교만합니다. 43-44) 평토장한 무덤 위를 발로 밟고 있듯이 자기를 속이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4) 신실치 못합니다. 속이고 향락에 사로잡힙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46)"고 했습니다. 앗수르 손에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한 것처럼 외식주의자는 혼합주의자입니다. (5) 잔인합니다.(48-51) 아벨에서부터 세레요한의 피까지 흘리는 무자비를 나타냈습니다. (6) 지식의 열쇠로 구원의 길을 막았습니다.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외식이 얼마나 많으며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범람한가요? 이것은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외식을 이길 수 있나요? 외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임하신 그 나라의 왕에게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로는 성전은 주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어디서나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 모임을 등 한히 여김으로 결국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른 예배라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자리에 나가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외식을 찾으십시오.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외식을 벗어납시다.

“Woe to you!” (Luke 11:33-54) 2003.3.12

In 3 John, it is said that Diotrephes was arrogant and drove out a man who treated him with empty gossip, but Thebetrius was said to be a man who received evidence of the truth. It appears that the church is a place where the battle between hypocrisy and truth takes place fiercely. What is eating out? Hypocrisy is a sin that destroys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and destroys oneself and one's neighbors. The text shows six characteristics of eating out. (1) It becomes dark inside. (33-36) Darkness means there is no

light. It means that greed and malice took possession of his heart. Because of this darkness, Jezebel and Ahab resisted the kingdom of God and destroyed themselves. Goodness, truth, and righteousness cannot exist in hypocrisy. (2) They are biased toward the outward side. (37-41) “The Lord said, ‘You Pharisees, you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platter,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malice.’” Verse 42 says that tithes of mint, rue, and all vegetables are given, but without justice or love. They have become hypocrites because they are ignora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uth. 3) Arrogant. 43 -44) Just as they walk over flat graves, they like to deceive themselves and enjoy high seats in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 (4) Unfaithful. They are deceived and obsessed with pleasure. He said, “You place a difficult burden on people, and you do not lift a finger from it (46).” Just as Israel under the hands of Aszer committed the abominable act of serving both God and idols, hypocrites are syncretists. (5) It is cruel. (48-51) It showed mercilessness, spilling blood from Abel to John the Baptist. (6) The way to salvation is blocked with the key of knowledge. In verse 52, even though they have the key of knowledge, they do not enter, and those who do are also blocked. How much hypocrisy we have today, and how widespread is this even within the church? This is what makes us It makes us dark. What can we do to overcome hypocrisy? The only way to overcome hypocrisy is to go to the Lord. After the Lord comes, the temple tells us to do our best. It has been completed through the Lord. The place where we gather in the name of the Lord is the church. We can gather and worship in the name of the Lord wherever we are. By neglecting this gathering, we have become syncretic. You must strive to worship in the spirit. You must worship in the truth, so that your beloved heart will always be filled with the truth and the

Holy Spirit. Let's go to the place of truth and find the hypocrisy within us that is ruining us.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골1:1-8) 2002.3.2

사도 바울이 늘 그러했듯이 골로새서 역시 감사로 넘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안에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발견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려 살 수 밖에 없는 부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요는 복음의 머리요, 내용이요, 핵심이신 그리스도안에 감추인 것입니다. 바울이 맛보았고 골로새 교인이 맛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맛보게 되는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능력은 적어도 4가지의 두드러진 삶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 처럼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입 맞추는 사랑의 응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임합니다. 복음의 맛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 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견 고히 내린 삶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 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더라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세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꽃 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복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넷째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이루 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저장해 놓 은 것에서 흘러나오는
 소망이란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완전한 구원과 모든 믿음 행위에 대한
 상급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입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그 맛을 볼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처음들은 복음
 때문에 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처음들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과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디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입니다.
 신 실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로 삼아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있 다면 신실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듣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야만 맛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에스라 사역처 럼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받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고넬료 가정과 에베소 교회에 증거된 복음이 성령 을 통해 깨달아질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처음들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입니다. 이 능 력의 삶을 꿈꾸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며 복음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Let's live by the power of the gospel (Colossians 1:1-8) 2002.3.2

As Apostle Paul always did, Colossians also begins with a greeting overflowing with gratitude. Here we can read Paul's heart as he discovered the tremendous blessings given in Christ. It's like discovering treasures on earth and seeing the wealth that you have no choice but to give your all for. This wealth is hidden in Christ, who is the head, content, and core of the gospel. What is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Paul tasted and the Colossians experienced? We would also like to think about how we experience this power. First, how was the power of the gospel revealed?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Paul discovered had at least four notable uses in his life. First, I achieved a life filled with grace and peace. Just as Paul said that the apostolic authority comes from the will of God, true comfort comes only from the will of God. No matter how good something is, if it is not God's will, there is no grace or peace. Therefore, we must respond with love by kissing God's will. However, this grace and peace comes to the saints, that is, to the faithful brothers in Christ. This is because the taste of the gospel is a gift given only to God's saved people. Second, I achieved a life with my faith firmly rooted in Christ. Who do you believe? Please trust only Christ completely. Even if you believe in the Lord, please believe completely. Those who have moderate faith cannot experience its power. Third, I have lived a life that shows the flower of love for my neighbors. This gospel appears as the fruit of love to those who believe in it. It is an expression of God's love for one's neighbors. "Love for all saints" is the characteristic of those who have received the gospel. Fourth, I have achieved a life of hope in heaven. The power of the gospel comes from the hope stored up in heaven. It is a hope that flows from what is stored in heaven. What is it like? It is complete salvation and a reward for all acts of faith.

When Paul saw this, he could not help but praise it. Second, how can you taste it? The Colossian believers first experienced this power because of the gospel they heard. What was the first gospel you heard? The Bible, Christ,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is is the gospel delivered through Titus. It is the gospel preached through faithful people and people of the Holy Spirit. Our wish should be to become a faithful person and a person who gives ourselves to the Lord to be used as a person of the Holy Spirit. However, this ability can only be tasted if you come to a place of listening and understanding. No matter how much Titus preached the gospel, this resul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they did not hear and understand. Like the Thessalonian saints, like the ministry of Ezra, that power arises when you understand the word and receive it as it is. The Holy Spirit came for this purpose. When we realize the gospel testified to Cornelius' family and the church in Ephesus through the Holy Spirit, we experience its power. A life of walking with the Lord is a life of first experiencing the power of the gospel. To dream of a life of this power and enjoy its grace, please return to the Bible and the Gospel.

표적중의 표적 (눅11:24-32) 2003.2.26(수)

본문은 이 시대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면서(24-26) 한 여인의 찬양과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27-29)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선포(30-32)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대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임을 또다시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주님은 그 나라가 임한 사실을 어떻게 증거 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한 사실을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심을 귀신이 도망 가는 비유를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 왕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활동이 아무리 강해도 그 머리를 짓밟으신 주님은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다스림을 볼 때 그 나라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이기에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로 느니웨가 회개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18:18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 하고 사람은 갈리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예언은 그가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승천한 다음 엘리사를 통해 하사엘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째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인 그리스도에게 모이는 것을 볼 때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온 것처럼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모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 문제가 해결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서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됩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백성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까요? 그 나라의 왕이요
 선지자인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다스리는 이 시대에 본문은 두 가지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하나님나라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삶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Sign of signs (Luke 11:24-32) 2003.2.26 (Wed)

The text begins with a parable about this era (24-26), a woman's praise and
 the Lord's response to it (27-29), and Jesus' evaluation and declaration of this
 era (30-32). . Here we hear the voice of the Lord emphasizing once again that
 this generation is also an era in which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How should we live as citizens of this country in this era we live in? First,
 how did the Lord testify that the kingdom had come? How does the text say
 that the kingdom has come? First, Jesus showed that he was the king of the
 kingdom through the parable of a demon running away. If you do not live
 devotedly for the king of your country, you may be temporarily under the
 control of the devil. However, no matter how powerful the activities of the
 ruler of the power of the air are, the Lord, who trampled on his head, now
 reigns as King. Therefore, when we look at the king's rule, we can see that the

abyss has come. Second, the kingdom came because it was an era in which a greater prophet than Jonah delivered the final message. Just as Neniweh repented through Jonah's preaching, it tells us that we are in an era when a greater prophet preaches the gospel. "The prophet" prophesied in Deuteronomy 18:18 is none other than Christ.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them is doomed to destruction. The world changes and people divide, but the word of the Lord is eternal. All of Elijah's prophecies were not fulfilled while he was alive. After he ascended to heaven, Hazael was anointed through Elisha, and just as Ahab and his son Joram were judged, the words of Christ are eternal and will definitely be fulfilled. Third, the kingdom has come when we see people gathering to Christ, who is wiser than Solomon. This wisdom is Christ. Just as the Queen of the South came after hearing the rumors of Solomon, this is an era in which people gather to the Lord after hearing the rumors of Him. Just as the Canaanite woman came to the Lord and her problem was resolved, we can enjoy the blessings of that country by coming to Christ, the king of that country. Second, then, how do God's people live in this era? In this era when the Lord, the king and prophet of the country, comes and rules in person, the text shows two attitudes. One is to believe in and follow Christ as your Lord. You have to go out to Him. Because he is the king of God's kingdom. Next, you must repent. Just as Jonah repented through his preaching, we must truly repent and go in and out by believing in his merits and find pasture. Only this kind of life will allow us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s kingdom.

임한 하나님 나라 (눅11:14-23) 2002.2.19 (수)

오늘 본문은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표적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놀라웁게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이며 그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요? 첫째,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습니까? 그 나라는 왕이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진정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세상 명예와 금은보화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명심이 작용했고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은혜받은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단행함으로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목의 자량이 아니라 이 세상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이런 눈이 뜨여지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둘째,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까요? 비방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 답변은 지혜로우시면서 여전히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그들에게 주님은 합리적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들린 자로 보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것처럼 모순을 범한 그들에게 너희 제자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 백성의 두 종류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이 루는
것이 그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주안에 거하는 자는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실한 교회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 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증거의 삶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라고 함께 모여야합니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같 이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의와 평 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s come (Luke 11:14-23) 2002.2.19 (Wed)

Today's text show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to this earth
through the incident of casting out a mute demon. And it proves that God's
hand is working amazingly toward the evil generation that seeks signs. What
is the evidence of the coming of that country and what should the lives of its
people be like? First, what was the evidence that the kingdom of God had
come? The kingdom came with the coming of the king. The Lord, who came
as a stronger one, working through the Holy Spirit is evidenc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Casting out demons with the word means that the
kingdom has come. The only way to know this is throug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Elisha received double inspiration and truly knew the value of
that grace. It was a grace that could never be exchanged for worldly fame and

gold and silver treasures. But Gehazi did not see this. Because he was driven by greed and greed, he ruined his life by doing things that a recipient of grace could not do. We must be able to have this perspective. Rather than bragging about our eyesight, we must be able to see the Lord working in this world. I hope that these eyes will be opened at this revival meeting.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purchase and apply the eye medicine of faith from the Lord. Holy Spirit, open my eyes! Second, how do the people of that country live their lives? In response to their slanderous questions, the Lord's answer was wise and proved that He was still the king of the country. The Lord responded reasonably to those who were driven out by Beelzebub. They see Jesus as someone possessed by a demon. Just as every nation in conflict cannot stand, He responded to those who committed contradictions by saying, "Your disciples will be your judges." The Lord taught us two types of life for the people of that country. First, the life of Emmanuel. Living as "one who is with the Lord." A life of walking with the Lord is the life of God's people. A life of abiding in the Lord is a life of enjoying the kingdom. No matter what problems arise in family, work, or church life, Those who live in the Lord can live while enjoying the kingdom. Second, a life of faithful church life is a life of gospel witness. We must come together to have this kind of hard work, and I hope that the blessings of enjoying the kingdom that has already come to your hearts will come. I hope that you will enjoy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강청하는 기도 (눅11:5-13) 2003.2.12 (수)

주님은 기도의 원리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것이 연속된 교훈인 것을 보여줍니다. 좀 무례하게 보이지만 이런 기도를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청하는 기도란 우리의 강한 사모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아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 사나 간질병자의 아버지의 강청기도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 받은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비유를 통해 강청하는 기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기도의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첫째, 강청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요? 오늘 읽은 비유에서 강청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것이 전혀 없어 옆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떡 3덩이를 빌립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강청함이 너무 간절해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그 강청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었다"(8)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돋보이게 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1)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입니다. 사실상 알고보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간절할 수 있었습니다. 2) 구체적인 제목을 가진 기도입니다. 떡 세 덩이였습니다. 구체적이란 말은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리키고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 한 것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기 쉽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식한 방법, 안면 몰수하는 방법, 인격자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구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례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이 증명합니다. 구하라(Ask) 찾아라(Seek) 두드리라(Knock)는 말들은 모두 강한 요구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인격자 앞에서의 두려운 긴장감을 가진 간절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강청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둘째,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요16:24) 더욱이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유익을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1)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2)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응답을 받으면 개인적인 교제가 더 친밀해집니다. 3)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13) 다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그 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행1:8) 오늘날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청하는 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로 문제의 산들을 옮기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Persuasive Prayer (Luke 11:5-13) 2003.2.12 (Wed)

The Lord did not stop at teaching only the principles of prayer, but also taught persevering prayer. The words “and he said” in verse 5 show that this is a continuous teaching. It may seem a little rude, but the Lord likes this kind of

prayer. The reason is because persevering prayer is an expression of our strong longing and an expression of faith in accepting God's abundance. It is seen that the Lord waited for the strong prayer of Elisana, the father of an epileptic patient, who asked for double inspiration, and received power when he prayed in that way. So, we who have received the teaching of persuasive prayer through a parable want to know the world of prayer. First, what is persuasive prayer? How was persevering prayer shown in the parable we read today? A traveling friend came to visit. Since I don't have anything to offer, I go to the house next door, knock on the door, and ask for three loaves of rice cake. At that time, the Lord said that his stubbornness was so earnest that he stood up and gave it as much as it needed. He concludes by saying, "I did not give it to him because he was my friend, but I gave him what he needed because of his insistence" (8). It highlights how important fervent prayer is. Persuasive prayer is 1) a prayer that begins with the motive of love. It's not your business, it's someone else's business. Actually, it turned out that it was a prayer for the work of God's kingdom. Hannah was also able to be earnest when she sought the kingdom of God, not for personal gain. 2) It is a prayer with a specific subject. It was three loaves of bread. The word concrete refers to a heart that feels a strong need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it, and a heart that bears the cross. It must be specific, like Elijah praying for it not to rain. It is easy for our prayers to be abstract and we must pray concretely. 3) It was an earnest prayer. It seems like an ignorant way, a way to confiscate one's face, and a prayer that saves one's face without losing face. But the following proves that this is not a rude request. The words Ask, Seek, and Knock are all strong requests, but they refer to earnest actions with patience and fearful tension in front of a person. Do you pray fervently? Second, what results does

persevering prayer bring? It is a promise in the Bible that all prayers are definitely answered. (John 16:24) Furthermore, what benefit does fervent prayer bring? Today's text speaks of three benefits. 1) You must receive what you ask for. We receive the best in abundance. 2) Faith grows. The relationship with my father becomes deeper. When you receive an answer, your personal fellowship becomes more intimate. 3)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3) It does not speak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again. Once He comes, He never leaves. So what is this? It means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means receiving the Holy Spirit of power. (Acts 1:8) The lack of earnest prayer is a serious problem today. If there is nothing to listen to, it is a sign that you are spiritually dying. I pray that your fervent prayers will be filled with the work of moving mountains of problems.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눅11:1-4) 2003.1.29 (수)

주기도문의 용서받는 간구와 시험을 이기는 간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기도입니다. 육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 적으로 일어나는 탐욕이나 외적으로 몰려오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승리 하는 삶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왜 중요하며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자 합니다. 첫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 셧는데 무엇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해야하는가?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할지 모르나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한 것을 믿음으로
 내 은혜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요일1:9절의 말씀대로 죄 자백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지적으로 죄를 알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의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사함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체험하게되고 현실적인 죄가 끊어지고 치료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 공로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 사함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불
 의와 불법을 가리우셨고, 기억지도 않으시며,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롬4:7,610:14,17) 이것을 실제적이게 하는 것은 현재 기억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 죄의
 악함을 알게 되고,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되며,
 그것이 성령이 역사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 고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양식인 주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시험이란 안으로 오든지 밖에서 오든지
 그 배후는 마귀가 조종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교란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실패하여 죄를 지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교만하게되고
 낙망하게되고 배은망덕하는 자리에 앉게됩니다. 마귀는 하와를
 의심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만이 이 시험을 이깁니다. 지극히 작은 죄나 시험까지도 주 . 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구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rayer taught by the Lord (Luke 11:1-4) 2003.1.29 (Wed)

The Lord's Prayer's prayer for forgiveness and prayer for overcoming temptation are also prayers centered on the kingdom of God. This is because it solves spiritual problems, not physical problems, and points to a life of victory when attacked by the greed that arises internally or the devil that comes externally. In short, seek a life without committing sin. I would like to think about why this prayer is important and what benefits we can expect. First, it is a prayer for forgiveness. The Lord has already forgiven us of all our sins, so why should we ask for forgiveness again? Those who misunderstand this may dismiss this prayer as if it is not necessary, but there are two reasons to pray this prayer of forgiveness. The first is to do it for the training of faith. What I am saying is that you should believe that everything is forgiven and take it as my grace. According to 1 John 1:9, confession of sin points to repentance. It means knowing sin intellectually, grieving with emotion, and surrendering with will. This means that if you believe in what the Lord has accomplished and pray for it, you will experience love as a recipient, realistic sins will be cut off, and the grace of healing will come to you through the Holy Spirit. Second, we will be able to enjoy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Lord's merits. The Lord's death fundamentally dealt with all sin. So the Bible says that the forgiveness of sins is "finished," and that all our unrighteousness and lawlessness has been covered, not remembered, and made perfect.

(Romans 4:7, 610:14, 17) What makes this practical? It is said that this is done by repenting of the sins that one remembers, and that this is done by forgiving the sins of others, and by forgiving the sins of others, one comes to know the heart of the Lord. Second, I pray that you will live as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filled with the love and truth of the Lord, which is the food for God's people, through confession of sin. Whether it comes from inside or outside of God's people, the devil's goal is to disrupt the status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and make them commit sin. As a result, we become arrogant, discouraged, and ungrateful. The devil is still attacking us with ignorance by putting Eve in a position of doubt, lies, and making decisions on her own. I pray that only those who pray within themselves can overcome this test and become saints who continue to receive God's grace by seeking God's help and mercy even for the smallest sins or tests.

갈멜산에 임한 은혜 (왕상19:41-40) 2003.1.26 (주)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선지가 활동하는 시대에 갈멜산에서 일어난 큰 은혜의 부으심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날로 아합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에게 산 소망의 길이 보이는 기회였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여호와이심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엘리야시대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교회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앞으로 수 년 내에 큰 위기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신자들의 마음이 점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성경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고 지도자들은 기도를 멀리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 산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런 축복을 가져왔는가요? 첫째,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의 은혜는 성령으로 시작한 기도로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현상은 심각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셨습니다.(18:1) 이 약속을 따라 기도한 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한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갈급하고 목 말라 하는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기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 헌신, 비존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본을 야고보는 신약교회 에 그대로 적용합니다.(약5:17) 거기서 "우리과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라고 한 말이 용기를 줍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행위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이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지를 가리 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였는가요? 1) 갈멜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 였습니다.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즉각 일하십니다.(마66) 2) 무릎 을 꿇는 겸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하 고 정직하고 간절했습니다. 3) 일곱 번 확인하는 믿음의 기도를 보입니다. 4)구름 이 떠오르는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세째,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여진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외적인 것을 구해 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 원한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론이 필요치 않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오지 않는 곳 에 일어난 사소한 것도 다툼이 되기 쉽지만 비가와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이루어지면 어떻고 저 사람의 의견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은혜 임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정작 싸워야할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까지 기도하십시오.

Grace on Mount Carmel (1 Kings 19:41-40) 2003.1.26 (Note)

The outpouring of great grace that occurred on Mount Carmel during the time of King Ahab and the time of the prophet Elijah was truly amazing. That day was an opportunity to give King Ahab a chance to repent, an opportunity to show the path of living hope to Israel suffering from tyranny, and an opportunity for the whole world to know that God is the living Jehovah.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as poured on the church like a shower of rain, to the extent that one might want to call it the Pentecost of the Elijah era. I feel like our era will face a major crisis in the next few years. The reason is that the hearts of believers are increasingly pursuing vain things, the Bible is increasingly being pushed to the outskirts, and leaders are pursuing a faith that distances themselves from prayer. Grace was poured out on Mount Carmel. What kind of prayer did Elijah offer that brought such blessings? First, it was a prayer initiated by the Holy Spirit. The grace of Mount Carmel came through prayer initiated by the Holy Spirit. Because we started by holding on to the Lord's promise. When the famine was serious, God promised rain (18:1). Praying according to this promise was a prayer initiated by the Holy Spirit. When we believe in the infinite promises of the Bible and pray, we can experienc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helps us pray when we are hungry and thirsty. Elijah believes this, so he goes before King Ahab and says, "There is the sound of a heavy rain. Go up, eat and drink." Please start praying with faith in the Lord's promises. This is because the Lord works where there is gratitude, praise, devotion, and vision. This is the way the Holy Spirit works. Dear friends, if your heart is dry, pray in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problems can only be solved when the Holy Spirit works. Please begin your prayers with the Holy Spirit. Second, it was an earnest prayer.

James applies the example of Elijah's prayer to the New Testament church (James 5:17). There, the words, "He is a man with like passions as we are," give us courage. If I pray like that, the Lord will give me grace. This is because it shows that James' actions come from prayer and points out how important prayer is. What kind of prayer was it? 1) It was a secret prayer offered while climbing Mount Carmel. When you pray in a secret room, the Lord works immediately. (Matthew 6:6) 2) It is a humble prayer that involves kneeling. He knelt down on a high mountain. He was truthful, honest and earnest. 3) Show a prayer of faith, confirming it seven times. 4) It was an earnest prayer that I prayed until I received an answer that made a cloud appear. Third, it was a prayer infus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Lord pours out the Holy Spirit even when we seek external things. Solving problems is important, but pouring the Holy Spirit on us to expand the eternal kingdom is more important. Power came to Elijah. We don't need theory, we need power. It's easy to fight over something trivial that happens in a place where it's not raining, but even if it rains, it's no big deal. No need to fight with people. What if that person's opinion comes true, and what if that person's opinion comes true? The utmost priority is for grace and power to come. This is because people who have received grace see a new world, give up on themselves, and know what to fight for. Let us pray until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poured out.

인내의 열매(고후4:7-18) 2003.1.8(수)

바울은 환난 중에 견디는 법을 성령 안에서 터득한 사람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보배로 보고 자기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 보배를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을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그에게 보여진 인내의 열매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첫째,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 바울에게서 알아봅시다. 바울은 어떤 고난에 대해 인내하였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씹을 당할 때 싸이지 않았습니다.(8)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습니다.(8)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되지 않았습니다.(9) 거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9) 결국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서도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10) 실제로 당한 그의 고난은 더욱 더 심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도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던 것은 성령의 능력안에서 한 것입니다.(욥1:21,2:10). 둘째, 인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내는 쓰나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일반적 격언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진리를 말하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약1:12)는 야고보 교훈은 절대적인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오래 참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났습니다.(10,11)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요10:10)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벧전4:14) 날로 새 로워 집니다.(16)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체험은 고 난을 당할 때, 성령 안에서의 인내를 가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래 참는 것을 배우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밑실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배우며, 다윗처럼 말씀의 세계에서 오래 묵상하는 것을 배우시다.(시119:97)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으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용 받는 참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성령님을 좇아갑시다.

Fruit of Patience (2 Corinthians 4:7-18) 2003.1.8 (Wed)

Paul is a man who learned how to endure during tribulation through the Holy Spirit. In verse 7, Paul saw the ministry of the gospel as a treasure and thought of himself as an earthen vessel containing that treasure. Also, he knows that he cannot bear the treasure without the sustaining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he shows that he has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et us think about the fruit of patience shown by him who relied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what results it brought. First, let's find out from Paul what the fruit of patience is. What hardships did Paul endure? Even when I was attacked on all sides, I did not give up. (8) Even when I was frustrated, I did not become discouraged. (8) Even when I was persecuted, I was not abandoned. (9) Even when I was knocked down, I did not fall. (9) In the end, Jesus The reason he

was able to endure death for so long was because he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10) In reality, his suffering was even more serious. Even if we face all kinds of difficulties for the Lord, we will definitely win if we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that sense, the reason Job did not sin even with his lips when he was severely tested was because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Job 1:21, 2:10). Second, what results has perseverance had? The general saying,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tells us some truth, but the admonition of James, “Blessed are they who endure trials” (James 1:12), has brought absolute fruit. What happened to Paul’s long-suffering? The life of Jesus appeared in his body. (10,11) It does not mean that Jesus appears in a mysterious form, but that his life appears abundantly in us. (John 10:10) When w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the Lord. Peter confesses that the Spirit of glory rests on him (1 Peter 4:14) and that he is renewed day by day. (16) The experience of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bu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is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when we suffer. This can be achieved when you have patience within. This is the evidence of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en we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learn to be patient. Therefore, let us learn to pray for a long time in the secret room of prayer like Hannah, and to meditate for a long time in the world of the Word like David. (Psalm 119:97) If we live according to our desires, we cannot learn patience. However, if we humbly follow the Holy Spirit, we will gain the fruit of long-suffering, experience the abundant life of Christ within us, and become true servants used by the Lord. Let us follow the Holy Spirit until we bear the fruit of patience.

그 날에 받을 면류관(딤후4:1-8) 2003.12.28

거진교훈에 붙들린 사람은 내세 소망이 희미해지고, 준비된 면류관에 무관심 하게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3-4절)고 했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 일, 나를 위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결심이 생 겨지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어떤 것인 가를 생각해야합니다. 8 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면류관"이란 승리자에게 주어 지는 증표인 "상급"(reward)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 는 상급을 계시록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과실을 주며(2:1).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11).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며(17).민국을 다스리는 권세(26)와 새벽 별(28)을 주며. 흰 옷을 입혀주며 생명 책에 녹명되 며 천사 앞에 인정을 받고(3:5). 성전의 기둥이 되고(12). 내 보좌에 함께 앉 게 하는(21) 상급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자에게 주어진 계 속되는 승리의 보상입니다.(요일2:12-13절) 또. "의"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속성 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과 통합니다. 의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의가 없는
 새로움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돌 탕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향해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요?
 최봉석목사님이 매를 맞을 때 "내 면류관에 별 하나가 더 붙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여 나를 위해 준비한 상급을 향해
 힘껏 달려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어떻게 얻습니까? 첫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1-2) 성경을 가르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항상. 범사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에게 주어 집니다. 이것은 교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협력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5절에 보니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마28: 19-20절에 충실하는 것이 주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메섹의 회심 이후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런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앞서 말한 증거사 역이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며 봉사하 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

고 경주와 같기 때문에 긴장이 있어야합니다. 관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라.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내 것으로 삼기위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말씀증거와 전도하는 일에 전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crown you will receive on that day (2 Timothy 4:1-8) 2003.12.28

People who are caught up in the old teachings have dim hopes for the afterlife. Becoming indifferent to the crown prepared is a characteristic of the last days. “The time is coming when people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ill grow old and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after their own use, and will turn away from the truth and wander into fables” (verses 3-4). On this last Sunday of the year, I hope you will have the resolve to continue the race of faith to obtain the crown promised for you. First, we must think about what kind of crown the Lord has prepared for us. What does “the crown of righteousness” mean in verse 8? A “crown” is a “reward” that is a token given to the winner. So, Apostle John talks a lot in the Book of Revelation about the reward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i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2:1). Not harmed by the second death (11). He gave them the hidden manna and the white stone (17). He gave them authority to rule over the nation (26) and the morning star (28). He is clothed in white, his name i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nd he is acknowledged before the angels (3:5). Become a pillar of the temple (12). He promised to give me a reward (21) by sitting with me on my throne. This is the reward of continued victory given to those who have already overcome (1 John 2:12-13). It was called the crown of “righteousness.” Good fight. This means that the one who fights a

righteous fight receives the reward. Righteousness is an attribute of God, which cannot be conceived by humans and is obtained only by believing in the merits of Christ. And this righteousness is the power that makes us “perfectly righteous.” So, this righteousness is related to the words crown of life, crown that does not fade, and crown of glory. Life without righteousness is not life. This is because we cannot think of newness without righteousness. Like Deacon Stephen, do we really have the ability to pray to our enemies, “Do not hold our sins against them” while looking at the day’s reward and being stoned? When Pastor Choi Bong-seok was beaten, could he say, “One more star was added to my crown?” I hope you will correct your course of faith and run with all your might toward the reward prepared for you. So how do you get that crown? First, it is given to the person who spreads the word. (1-2) This means that it is given to those who teach the Bible and work hard. always. It is given to servants who strive to rebuke, warn, and exhort in all things. This is given to ministers and to those who cooperate and work hard in the work. second. It is given to those who evangelize. In verse 5, it says to do all the work of an evangelist. Matthew 28: Being faithful to verse 19-20 is the way to receive rewards from the Lord. Looking at Paul's life, you cannot tell how beautiful it is. We don't know how much suffering he had to endure after his conversion in Damascus before he went to Rome. However, God accomplished His will through such circumstances. No hardship could block his path. third. It is given to those who keep the faith.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witness mentioned above is difficult is because it must be done while maintaining faith. As we evangelize and serve, we must focus on being governed by the Holy Spirit. There has to be tension because this is like a war and like a race. If you do not pour yourself out like a drink offering, you

cannot keep it until the end. Look at the crown prepared for m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like Paul, you may become a saint who uses your gifts to do your best in witnessing and evangelizing the Word in order to claim the crown of righteousness as your own.

므나 비유(눅19:11-27) 2004.1.7 (수)

본문은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한 커인이 열 종에게 한 므나씩 나누어주고 돌아온 후 평가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 우리는 하나님나라 백성이 두 사이에 끼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도 떠나 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 유익을 위하여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두 사이에 낀 영적 긴장을 보여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사 이에 낀 사람들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갈등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 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로 살게 될까요? 첫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인을 잘 알아야합니다. 므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차이점은 전자가 모두 한 므나를 같이 받지만 후자는 각기 차이를 두 었습니다. 전자는 구원 후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받은 은사에 따라 열매를 남긴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므나 받은 사람이 똑같이 주인과 그 뜻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자하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 은사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아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싫어하는 원수와 악한 종은 모 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자,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로 만 아는 것은 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리고의 소경과 삭개오는 부르는 분을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메 시야요. 구원주이심을 알고 믿었기에 한 므나로 충성된 삶을 살게된 것입니다. 둘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어디서부터 빗 나갔 는가요? 같은 주님. 같은 구원, 같은 왕. 같은 명령(장사하라)인데 왜 그런 차 이를

만들었나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며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니다. 착한 마음을 만들어주십니다. 충성된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일했습니다. 절대 성취력이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합니다. 오늘날 착한 마음이 얼마나 무시되니까? 어리 석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이 일하는 발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기경하여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는 착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되는 것입니다. 세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작은 일에 신실해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는 지극히 작은 일(a very small matter)에 신실할 때 주어 집니다.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여러 배나 남긴 자는 적은 일에 신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못 받았어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려고 힘쓸 때. 넘치는 열매가 나타나 는 것입니다. 전도. 성경읽기, 기도. 교회모임은 모두 다 이런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나?"는 교만한 마음보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이루어야합니다. 충성된 종이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rable of the Minas (Luke 19:11-27) 2004.1.7 (Wed)

This text is one of the parables of heaven. The story is about a king who goes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the throne, distributes one mina to each of his ten servants, and then evaluates them upon his return. Here we see the people of God's kingdom caught between two things. Paul also shows the spiritual tension between the two, saying that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leave, but

that he is here now for your own good. When we live as people caught between the kingdom of God that has already come and the kingdom of God that will come, there is conflict, drive, and dedication. How can we who are caught between the two live as faithful people? first.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know your master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a parable and the talent parable is that in the former, both receive one mina, but in the latter, there is a difference. The former refers to the fruit after salvation, while the latter refers to a life that leaves fruit according to the gifts received. However, both the person who received one talent and the person who received one mina did not know the owner or its meaning. This means that for those of us who want to live a faithful life, it is important to know each day who the One who saved and gifted us is. This is because the enemies and evil servants who hate the Lord do not know the Lord personally. Being seen only as a stingy person or someone looking for unearned income directly affects loyalty. So Paul, the blind man of Jericho, and Zacchaeus knew better than anything else the One who was calling. He is the Creator. It's Messiah. Because he knew and believed that he was the Savior, he lived a faithful life with only one pound. second.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have a good heart. Where did we go astray? Same Lord. Same salvation, same king. It's the same command (do business), but why was there such a difference? It was a matter of the heart. Indeed, he does not force us to do it, but with pleasure. He creates a good heart. Those who were faithful received the word and worked with a kind and good heart. We must bet our lives on His Word, which has absolute fulfillment. How much is a good heart ignored these days? Treats you like a fool. A good heart is the field where the Holy Spirit works. We live a faithful life when we cultivate our hearts every day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and keep a good heart in which the Holy Spirit works freely. Third.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be faithful in small things. The evaluation of a good and faithful servant is given when one is faithful in a very small matter. This is because those who worked diligently with the salvation they received and made a profit many times over were faithful in small things. How thankful are you that you were saved even if you did not receive anything else? When we try to share it with our neighbors. Overflowing fruit appears. Evangelize. Reading the Bible, praying. All church gatherings are like this. Rather than arrogantly thinking, “If you don’t call someone like me, who else will you call?”, you should accomplish small things with a humble heart, saying, “I’m so grateful that you called someone like m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evaluated as faithful servants.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7 (2003)]

Soli Deo Gloria